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hanghai Youth 2009

엑스포를 향한 상해 청년

2009 상해청년의식 보고서

번역·편집 : 이명숙

발 간 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각국의 청소년 전문기관들과 청소년관련 조사와 정책연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를 창립하였습니다. 1997년에 9개국 13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이래 현재 11개국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핵심적인 청소년전문 교육·연구기관인 『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과 본원과의 우호관계는 2004년 청소년지도자정기교류를 위한 MOU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어 기관 상호간 방문단 교류가 현재까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 기관간의 상호 이해와 동반자적 관계구축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국제협력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단순한 인적·정보교류와 행사위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자체 진단을 토대로 본원은 WARDY를 통한 국제협력을 "연구사업중심"으로 전환하여 각 국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관간 교류수준을 진일보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 청소년간의 이해증진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국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소년관련 자료 및 정보교환, 지도자교류, 연구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원과 특별한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 핀란드의 협력기관들과 우선적으로 연구협력을 하고자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첫 단계로서 본원 원장을 중심으로 대표단이 2010년 6월 『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을 방문하여 한-중 청소년정책과 의식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방문기간 중에 상해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공청단상해시위원회에서 상해 청년들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2009 상해청년발전보고서』를 소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대중국 종합연구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청소년전문기관

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행복지수, 라이프스타일, 창업 및 기업가정신, 노동 시장 및 취업실태, 국제사회 활동참여 의식, 리더십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주제 영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 청소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중장기 연구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중장기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로서, 우선 상해 청소년들의 의식과 생활, 가치관 등에 대한 한국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9 상해 청년발전보고서』를 번역·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번역서 발간에 협조해 주신 중국측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가 한-중 양국 청소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양국 국민간 이해증진 및 실용적 학술연구 교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1년 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복

发 刊 词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为了加强与各国青少年专门机构和青少年相关调查及政策研究领域部门的协作，于1997年创立了9个国家13个研究机关参加的国际青少年研究开发协议会（WARDY），现已有11个国家与20个研究机关加入。

其中中国核心青少年专门教育、研究机关“中国上海青年教育研究所”与我院的友好协作关系是从2004年为了定期举行青少年研究与交流签订的MOU协议为契机发展到现在的。双方至今为止仍定期进行的访问团互访活动，更是对双方的相互理解与协作奠定了扎实的基础。

虽然如此，如果对我院的国际协作事业做总体评价的话，还是以情报交流与活动居多。以此自我诊断为基础，我院认识到应该把通过WARDY进行的国际协作转换成“研究事业中心”，并与各国构建常时协作体系，以此进一步提高各国机构之间的交流水准，并巩固各增进国青少年之间的理解。

从2010年开始，为了从新订立国际协作的方向以及能够使青少年相关资料与情报的交换、研究人员交换、研究协作等走向健康发展，我院拟定了与有特殊友好关系的中国以及芬兰的相关部门优先进行研究协作的研究计划。

在实行这个研究计划的第一阶段，我院院长曾带领代表团与2010年6月访问了“上海青年管理干部学院”，并以韩中青少年政策与意识为主题进行了非常有意义的研讨会。访问期间，上海世博会正在隆重举行。在那里我院收到了共青团上海市委对上海青年的生活与意识进行了调查之后编写的“2009上海青年发展报告”一书。

在韩国，国务总理室下属经济人文社会研究会正在促进“对中国综合研究5年计划。经济人文社会领域的23个国策研究机关里，作为青少年专门研究机关的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正在准备一份中长期研究，着重点是以青少年的幸福指数、生活风格、创业以及企业家精神、劳动市场、就业状况、参与国际社会的活动的意识、领导能力、市民意识等为研究主题，对韩国与中国青少年之间的相

似点与区别进行比较分析。

在进行这种综合性中长期研究的准备阶段，为了让政策专家更好的理解上海青少年的意识与生活、价值观等，我院决定翻译并发行“2009上海青年发展报告”。中方相关部门对发行本书给予的帮助，我院感谢之至。希望本书能够成为在研究青少年领域增进两国国民之间的相互理解以及使学术交流更上一层楼的奠基石。

2011年1月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院长 李明淑

이 명淑

목 차

서 문	08
I. 엑스포 : 새로운 꿈을 키운다	17
제1절 보고서의 연구배경	20
1. 엑스포가 중국에 주는 의미	20
2. 엑스포가 상해에 주는 영향	24
3. 엑스포가 청년들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	29
제2절 연구 배경	34
1. 연구취지	34
2. 연구내용	35
3. 연구방법	37
II. 엑스포 : 새로운 이념을 품는다	45
제1절 상해 청년들의 개방의식	47
1. 청년들의 애국심	47
2. 청년들의 국제적 시각	49
3. 청년들의 인터넷 도덕과 법의식	54
III. 엑스포 : 새로운 유행을 전개한다	59
제1절 상해 청년들의 오락생활	61
1. 청년들의 생활추구	61
2. 청년들의 유행과 휴식	64
제2절 상해 청년들의 국제교류	67
1. 청년들의 유학과 직업선택	67
2. 청년들의 국제교류와 국제결혼	70



제3절. 상해 청년들의 환경보호와 생활.....	73
1. 청년들과 환경보호	73
2. 청년들과 녹색 상해 엑스포	76
IV. 엑스포 : 새로운 생활을 구축한다	79
제1절. 상해 청년들과 조화로운 가정 창립	81
1. 청년들의 가정 구성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	81
2. 청년들의 조화로운 가정에 대한 인식과 실천	85
제2절. 상해 청년들의 커뮤니티 건설	89
1.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	89
2. 청년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	92
제3절. 상해 청년들과 새 농촌 건설	95
1. 청년들의 새 농촌 발전전망에 대한 인식	95
2. 청년들의 도시와 농촌 상호작용에 대한 느낌과 체험	96
V. 엑스포 : 새로운 창조를 격려한다	101
제1절. 상해 청년들과 과학기술 창조	103
1. 청년들은 점차 과학기술 창조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103
2. 엑스포는 청년들의 과학기술 창조의 최적의 무대이다	104
3. 청년들의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제고하는 현실적 조치이다	105
제2절. 상해 청년들의 창업소망	107
1. 청년 창업단체에 대한 개관	107
2. 청년 창업영역의 추세에 대한 분석	109
3. 청년들의 창업조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	110
제3절 상해청년들과 문화혁신	112
1. 엑스포의 힘을 빌려 창의성 도시를 건설한다	112
2. 청년들의 창의성 산업 발전 현황.....	114
3. 엑스포는 창의성 청년 계층의 출현을 촉진시킨다	116



서 문

몇 년간의 긴박한 준비를 거쳐 2010년 상해 엑스포가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과 상해에 집중되고 있다. 엑스포가 시작된 지 150여년 이래 인류문명이 발전하는 발자국을 특수한 각도로 기록해 왔다. 21세기 현재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전 세계의 경제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성과를 충분히 전시하는 장이며 세계의 서로 다른 문명이 깊게 교류할 수 있는 성회가 될 것이다. 이는 과학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도시 문명의 성과를 전시하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의 중국은 창의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약진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과학적인 발전관을 견지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등 중국의 발전은 세계적 역사의 추세에 맞고 엑스포의 주제와도 잘 어울린다. 엑스포 개최는 중국이라는 역사가 유구한 국가에 창의적 정신을 불어일으킬 것이고 중국 현대화의 발전을 추진시킬 것이며 동시에 상해의 "네 가지 중심"¹⁾ 과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의 건설도 강력하게 촉진할 것이다.

2010년 상해 엑스포의 주제는 "도시는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이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결정체로서 인류사회의 진보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한 도시인들의 생활수준 개선과 향상에 이바지 했다. 청년들은 도시에서 활력과 창의성이 제일 풍부한 집단으로서 도시의 발전과 매력의 구현에 거대한 추진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도시는 청년들을 배양하고 청년들은 도시를 건설한다. 도시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기초를 제공해 주고 청년들은 도시의 아름다운 미래에 동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도시와 청년간의 상호 작용은 양자가 함께 발전하고 공동으로 진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어 창조하고 발전하게 한다.

2009년에 공청단 상해시위원회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엑스포를 향한 상해 청년들"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과제는 2010년 상해 엑스포의 개최를 배경으로 청년들의 시각과 사회의 시각이라는 양

1) (역자 주)"네가지 중심"이란 방송문화서비스중심, 산아제한기술서비스중심, 농업종합기술서비스중심, 농촌건설서비스중심 등을 의미한다.



측면에서 현시대 상해 청년들의 사상 변화, 생활에 대한 추구, 창의성과 창업, 국제적 시야 등 여러 방면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묘사했다. 또한, 엑스포 개최가 상해 청년들의 생활과 발전에 주는 심각한 영향을 생생하게 나타냈으며 현시대 청년들의 발전 추세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에 대한 작용과 영향에 대해 전망했다. 이 과제는 표본 설문조사를 주로 하고 개인에 대한 심층 면접으로 보완하여 다양한 유형의 청년집단들이 엑스포 개최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생활과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감수성과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했다. 그 외에 이번 과제에서는 고위층에 속한 청년들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더욱 높고 새로운 각도에서 현시대 청년들이 엑스포 개최와 현시대 경제사회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작용을 분석 했다.

"엑스포를 향한 상해 청년"이라는 과제는 1999년부터 상해 청년 발전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큰 공공행사를 계기 삼아 상해 청년들에 대해 진행한 전면적인 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현시대 청년들의 엑스포에 대한 인식과 참여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인력배치와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광범위하고 유효한 선전과 동원, 조직과 인술을 통해서 현시대 청년들을 응집하고 격려하여 적극적으로 엑스포에 참여케 하고 공헌케 하며 다채롭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완벽하게 개최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창조한다. 연구내용을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면, (1) 엑스포는 현시대 청년들이 발전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상해 엑스포는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에서 개최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적 성회이다. 엑스포는 현시대 청년들에게 "중국을 벗어나지 않고도 세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례가 없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엑스포 개최 기간내 서비스를 보면 상해 엑스포는 적어도 자원봉사자 22만 명이 필요하고 자원봉사 시간도 반년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청년들이 틀림없이 자원봉사의 주력이 될 것이며 공헌하는 정신을 발휘하고 공민의 책임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2) 상해 엑스포는 상해 공청단 사업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첫째, 엑스포에 참여하는 것은 공청단이 사회주의 조화로운 건설, 사회주의 정치 건설, 사회주의 경제 건설, 사회주의 문



화건설을 보장하는데 무대를 마련한다. 청년들의 민중 조직으로서 공청단은 청년들을 조직하여 엑스포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도시 문명의 새로운 풍채 등을 고양시키는 면에서 독특한 강점이 있다. 둘째, 엑스포에 참여하는 것은 공청단이 청년들을 응집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엑스포 참여는 청년들을 교육하는 생생한 현장 실습이고 청년들을 연계하는 중요한 연결체이다. 여러 청년들이 엑스포에 참여하는 과정은 곧 공청단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엑스포는 또한 청년들과 공청단 조직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문명소양이 더 높아져야 하고 공청단 조직의 인력과 동원 능력도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엑스포의 기획사업이 부단히 추진됨에 따라 청년들과 청년 조직이 모두 좋은 단련, 전시와 공헌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미래의 발전 과정에서 더 침착하게 새로운 도전에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1999년부터 공청단 상해시위원회는 실증연구의 방식을 통해서 상해 청년들의 생활과 발전 상황에 대해 추적을 실시했고 심도있는 연구와 총체적 결론을 도출했다. 11년 동안 우리의 연구 사업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번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고 지도해 준 사회 여러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해 동안 상해 청년 사업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신 청소년 사업 종사자들과 사회 여러 분야 인사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중국공청단 상해시위원회
서기 판 민 (潘敏)

序

经历了多年紧锣密鼓的筹办，2010年上海世博会的脚步已日益临近，世界的目光正聚焦中国，关注上海。150年来，世博会从独特的角度记录了人类文明发展的脚步，而21世纪的今天，2010年上海世博会将成为全球经济和科技最新成果充分展示的盛会、世界不同文明深入交流的盛会，这既是推进科学发展的重要契机，也将是展示城市文明成果的历史机遇。今天的中国，正朝着建设创新型国家的目标坚实迈进。坚持以人为本，深化改革开放，践行科学发展观，构建和谐社会，中国的发展顺应世界历史潮流，与世博会的主旋律彼此呼应。世博会的举办必将会在我们这个古老的过度催生创新的激情，推进中国现代化的前进历程，同时也必将有力地促进上海“四个中心”和社会主义现代化国际大都市的建设。

2010年上海世博会的主题是“城市，让生活更美好”。城市是人类文明的结晶，她包罗万象，兼收并蓄，不仅促进了人类社会的进步，也促进了包括青年在内的城市人生活水平的改善与提高。而青年作为城市中最具活力和最富创新能力的群体，对城市的发展、魅力的展现具有巨大的推动和影响。城市培育青年，青年建设城市。城市为青年的美好生活提供基础，青年为城市的美好未来提供动力，两者的良性互动演绎和创造了城市与青年同发展、共进步的美好图景，也留下了更多的空间让我们去创新、发展。

2009年，共青团上海市委组织专门力量，邀请有关专家学者，围绕“拥抱世博的上海青年”这一课题进行了实证性研究。课题以2010年上海世博会的举办作为时代背景，结合青年视角和社会视角两个角度，初步勾勒出当代上海青年在思想变迁、生活追求、创新创业、国际实业等方面的基本状况，生动展现世博会的举办给上海青年的生存和发展带来的深刻影响，并就当代青年的发展趋势及对国家政治、经济、文化、社会发展的作用和影响进行前瞻性的展望。课题在开展抽样调查的基础上辅以个案访谈，力求更为全面的反映各类青年群体在



世博会举办大背景下对生存发展的真实感受和现实诉求。此外，本次课题中还专门设置了高端访谈栏目，采访了部分与世博筹办机密相关的领导，从更高、更新的角度来准备当代青年在世博会筹办乃至当前经济社会发展中的位置及作用。

“拥抱世博的上海青年”这一课题是自1999年上海青年发展报告发布以来，我们首次以重大公共事件为切入点上海青年群体进行的以此全景式扫面研究。这项课题的研究将有助于我们较为准确的掌握当代青年对世博会的认知和参与状况，有助于我们及时调整部署，采取积极措施，通过广泛有效地宣传动员和组织引导，凝聚、激励当代青年踊跃参与世博、奉献世博，为圆满举办一届成功、精彩、难忘的世博会创造最佳条件。纵观整项研究，我们有两点深刻体会。第一，世博会成为当代青年发展的重要机遇。上海世博会是继2008年北京奥运会之后中国举办的最富影响力的国际盛会。它不仅将为当代青年提供“不出国门、看遍世界”的大好机遇，而且还提供了一个史无前例的参与机会。围绕世博会举办期间的服务，上海世博会将至少需要志愿者22万人，其中世博园区志愿者7万人，世博城市文明站点志愿者15万人，而志愿服务的时间也将长达半年之久。青年无疑将成为志愿者的主力，发扬奉献精神，践行公民责任。第二，世博会成为上海共青团事业发展的重要推动力。一方面，参与办博为共青团服务大局搭建了舞台。作为青年群众组织，共青团在组织青年参与世博志愿服务、引导青年弘扬城市文明新风等方面具有独特的优势；另一方面，参与办博为共青团凝聚青年提供了载体。参与办博是教育青年的生动课堂、联系青年的重要纽带，广大青年参与世博的过程，正式团组织扩大覆盖面、提升影响力的过程。当然，世博会也将对青年及团组织提出更高要求。比如，青年文明素养有待提升，团组织的吸引力、动员力有待增强。但我们相信，随着世博会筹办工作的不断推进，无论是青年还是青年组织都将能获得较好的锻炼、展示和





风险的机会，并且在未来的发展历程中更加从容地应对新的挑战。

自1999年开始，共青团上海市委通过实证研究的方式，对上海青年的生存与发展状况实施全过程追踪，进行深入的研究和总结。11年来，我们的研究工作得到了社会各界的鼎力支持。在此，我们要衷心感谢关心和指导这项研究的社科界众多专家学者，衷心感谢多年来为上海青年事业的发展付出心血和帮助的青少年工作者和社会各界人士。

2009年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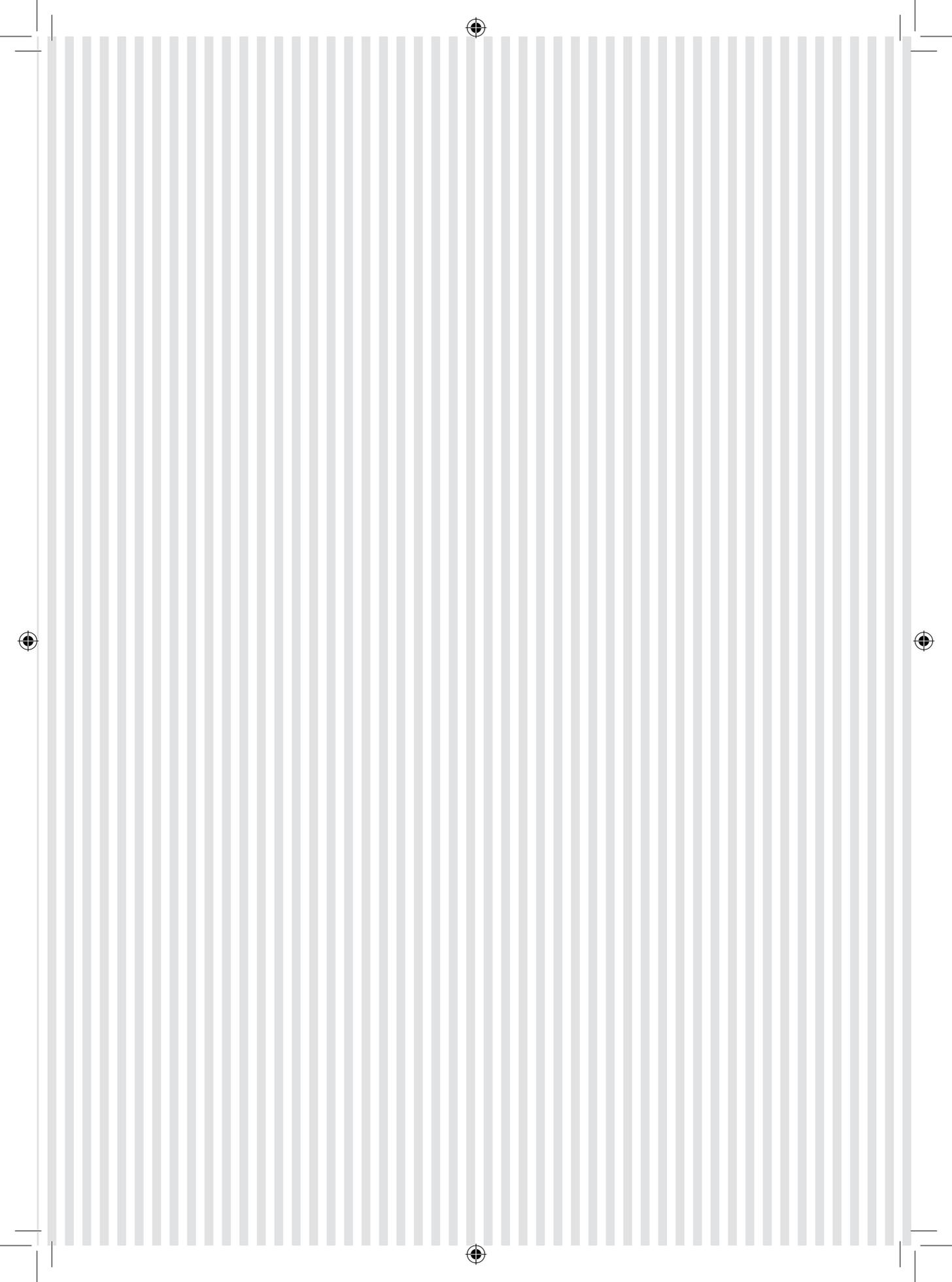
共青团上海市委书记 潘 敏

编委会名单

主任：潘敏
副主任：钟晓敏 夏科家
委员：菜忠康 年周建军 姚强
褚敏 应长明 邱力萍 穆青
王锋 华洁蓉 陆浩 张恽
赵静茹 陈征

顾问：丁伯婕 仇立平 卢汉龙 刘波
杨雄 杨江丁 郑双征 荣跃明
赵修义 顾东辉 徐知 曾燕波
(以姓氏笔画为序)

主编：潘敏
副主编：钟晓敏 康年 褚敏 刘刚
执行编辑：黄洪基 李子
撰稿：黄洪基 赵文 陈宁 方慧
邓蕾 陆焯 周颖 罗亦兰
王惠 谢伟光 葛风 王丹阳
朱彦 王鑫 张海静 李永敏
许佳妮
统稿：黄洪基 赵文 李子 韩晗





I . 엑스포 : 새로운 꿈을 키운다



오늘의 중국은 새로운 공업화와 국가를 건설하는 길에서 질주하고 있으며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며 과학적인 발전을 실천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역사의 조류에 맞고 엑스포의 주제와 어울리는 것이다.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중국이라는 오래된 국가에 창의적 정신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중국 현대화의 발전을 앞당기는 동시에 상해의 "네 가지 먼저²⁾"와 "네 가지 중심³⁾"의 건설을 촉진할 것이다. "도시는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상해 엑스포는 신세기 인류 도시생활의 성대한 모임이 될 것이고 "창의성"과 "융합"을 주선율로 하는 교향악이 될 것이며 인류 다원문화의 한 차례 멋진 대화가 될 것이다. 상해 엑스포는 중국에서 진행하지만 또한 성대한 세계적인 모임이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글로벌적 자신감을 제고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기술, 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금융위기를 대처하며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즐겁게 모이고 교류하며 전시하고 합작한다"가 엑스포의 발전이념이다. 여러 중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엑스포는 집 앞에서 열리는 성대한 글로벌적인 모임이다. 엑스포의 개최는 청년들이 사회의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청년들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장이자 기회가 되었다. 현대 청년들은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여 상해적인 시각, 전국적인 안목, 글로벌 시야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으로 엑스포에 참여하고 엑스포의 정신을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세계의 선진 문화와 발전 이념의 유입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늘리며 자질을 제고하고 인격을 완벽하게 하며 이미지를 리모델링하여 "더욱 아름다운 도시"의 건설자와 "더욱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자, "더욱 깊은 정의"의 전파자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엑스포가 청년들을 단련하고 상해 청년들의 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이자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로우움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할 것이다.

2) (역자 주)"네가지 먼저"란 발전방식을 먼저 변환시키는 것, 자주적인 창의성능력을 먼저 제고하는 것, 개혁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것,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를 먼저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역자 주)"네가지 중심"이란 방송문화서비스중심, 산아제한기술서비스중심, 농업종합기술서비스중심, 농촌건설서비스중심 등을 의미한다.



➔ 제1절 보고서의 연구배경

1. 엑스포가 중국에 주는 의미

중국과 엑스포의 관계는 역사가 유구하다. 1851년 런던에서 제일 처음으로 엑스포를 개최할 때부터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자신의 기술성과와 역사문화를 전시했고 그 와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명도 흡수했다. 150여 년 동안 중국과 엑스포는 매우 깊은 역사적 연원이 있었다. 2010년의 상해 엑스포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개최하는 엑스포이며 또한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엑스포이다. 이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와 협작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며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형상과 지위를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 영역의 성과를 전시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의 평화와 공영을 건설하는데도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세계 여러 나라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이미 지 향상에 유리하다.

엑스포의 개최는 여러 나라와 민족 간의 교류를 통해 우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며 주최국의 국제적 지위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엑스포의 기회를 빌려 자신의 지명도와 국제적 명성을 높였다. 1851년 영국에서 개최한 제1회 엑스포는 주로 영국의 산업혁명 성과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실력을 전시하고 대영제국의 국제적 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부흥한 독일과 일본이 엑스포의 개최를 갈망한 것은 그들의 국제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상해 엑스포의 개최도 세계 여러 나라와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엑스포는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우정을 증진하는 국제적 행

사로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창의성을 촉진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해 엑스포는 중국의 전통 지혜와 세계 선진문명을 결합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국민들이 중국의 전통문명과 중화민족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문명과 중화문화의 품모와 매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엑스포가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역사가 유구하며 발전하고 있는 대국인 중국에 다가왔을 때 분명히 농후한 중국적 요소가 첨가될 것이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중국의 전통적 이념과 인간을 근본으로 삼는 조화로운 지속적 발전의 시대정신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모두 중국이라는 오래 되고 또 새로 부흥하고 있는 세계대국의 문화 실력과 종합적 국력의 체현이며 인류 정신문화의 보고에 대한 특별한 공헌인 것이다.

다음으로 엑스포에는 중국 건설의 위대한 성과 특히, 개혁개방이후 30년간의 거대한 변화, 중화민족문명의 진보와 개방된 이미지, 중국의 자신감과 국제적 친화력이 부각되어 전시될 것이다. 상해 엑스포를 계기로 중국은 책임을 지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이 개혁개방이후에 취득한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의 성과와 국민들의 정신적 풍채와 용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류, 인류문명 발전이념의 전파에 큰 무대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국제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글로벌 경제가 쇠약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은 상해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 조직, 기업 등에 창의성의 성과를 전시하고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포용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단호한 창의적 정신으로 결연하고 용감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하며 더욱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이는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이해와 우정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유리할 것이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발전과 진보를 촉진할 것이며 중국의 국제지위와 이미지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2) "엑스포"의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을 창출하고 중국경제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한다.

엑스포는 경제발전에 유리하며 강대한 경제·사회적 역량이 있다. 엑스포의 개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을 매우 많이 가져다준다. 예를 들면 개최국은 엑스포를 통해 그 나라의 생산품과 기술을 국제시장에 선보일 수 있고 국제무역과 기술합작을 확대하여 더욱 큰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건문을 넓혀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영경험을 배울 수 있고 본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발전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엑스포를 통해서 관련되는 생산품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취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세금 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 미래의 중국경제 발전으로 볼 때 엑스포의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엑스포의 개최를 통해서 국제경제의 규칙을 더 쉽게 파악하고 법규를 더욱 쉽게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포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국제경제 분야의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을 진행한 30여 년 동안 중국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전통 농업국으로부터 신흥공업국으로의 전환,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했다. 개혁개방의 진행에 따라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시장화와 국제화를 체험하고 있고 비약적인 발전 속도로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점차 세계 여러 나라가 광범위하게 주시하는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2010년 상해 엑스포의 개최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중국의 거대한 경제성과와 종합적인 국력을 전시하고 안정된 정국과 번영하는 경제, 장기간 안정된 사회질서를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엑스포의 상업적 기회를 잡고 개혁을 더욱 심화하며 개방을 촉진하고 국제경제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국민경제의 좋고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위기의 열악한 환경이 여전히 남아있는 세계경제를 볼 때 엑스포의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을 빌어 중국경제를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은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다. 마치 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锦涛)중국 국가주석이 말한 그대로 활력이 넘치고 더욱 개방된 중국은 중국경제의 안정되고 빠른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국제금융위기를 대처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데도 유리하다.

(3) 사회적 효과와 이익을 창조하고 국민의 전체적 소질을 제고하며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한다.

엑스포는 정부의 능력과 국민의 소양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며 사회풍습과 국민의 심리 상태를 전시하는 큰 무대이다.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중국국민들에게 개방된 심리 상태를 형성시키고 국제 의식을 배양하며 문명 소양을 제고하고 민족 이미지를 리모델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문명한 예의지국으로서 예를 갖추어 오가는 것을 중시하고 손님접대를 좋아하는 우수한 민족전통을 가지고 있다. 상해 엑스포



의 개최를 기획하고 거행하는 것은 13억 중국 국민들이 "이해하고 교류하며 즐겁게 모이고 합작" 하는 엑스포의 이념을 따르게 할 수 있고 엑스포에 대해 열정적으로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착하고 대범한 국민의 심리 상태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문명소질을 양성하게 할 수 있다. 사실이 증명할 수 있듯이 중국 국민들은 주최자 역할을 잘 담당하여 멀리서 온 손님들한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측의 멋진 전시를 지원하며 교류와 융합, 창의성과 진보, 성과와 체현, 전수와 미래, 조화로운 발전 등 엑스포의 이념을 잘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도움, 서로의 양해, 서로의 존경과 신임,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가정, 사회,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문명적인 행동을 통해 엑스포에 진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엑스포는 인류 이념을 혁신하는 장소이며 인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중국인의 창의적 의식을 키우고 과학적 소양과 종합적 자질을 제고시키며 나라의 발전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중국사회의 안정적·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 국민으로 볼 때 광대하고 다채로운 엑스포는 새로운 국가적 행사인 것이다.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엑스포를 신청, 선전,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격려하여 적극적으로 엑스포에 참여하고 엑스포에 유입되며 엑스포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은 중국 국민이 현대 과학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해 엑스포의 슬로건인 "도시는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에서 상해 엑스포를 기회로 하여 도시 문명의 성과를 충분히 전시하고 도시 건설의 경험을 교류하며 도시 발전의 이념을 전파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과 발전에 대해 연구 토론할 수 있으며 인류의 더욱 새롭고 좋은 거주, 생활, 사업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중국 국민들은 이런 세계 선진 도시문명에의 체험을 통해서 미래 도시문명발전의 방향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중국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청사진을 스케치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과의 교류와 합작에서 미래의 아름다운 도시생활을 함께 전망하고 창조할 수 있다.

요약하면,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중국에 원대한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과 국제적 지위의 제고도 추진할 수 있고 인류에게 진귀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남겨줄 수 있으며 인류 전체의 이익과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2. 엑스포가 상해에 주는 영향

1980년대에 상해시 왕도우한(汪道涵)시장은 최초로 상해에서 엑스포를 개최하지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엑스포는 광저우 수출상품교역회와 다르다. 광저우 수출상품교역회는 전술적인 것으로서 그 영향이 1년 가지만 엑스포는 전략적인 것으로서 영향이 50년 간다"고 밝혔다. 엑스포는 상해와 양자강 삼각지역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 중국의 경제 건설에도 촉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010년 엑스포의 개최는 중국의 국가 전략일 뿐만 아니라 상해시를 진일보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상해에서 "네 가지 중심"을 건설하고 "네 가지 슬선"을 실현하는 시기에 엑스포의 개최는 필연적으로 상해에 더 많은 창의적 정신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엑스포라는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잡으면 상해의 경제와 사회 사업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종합 박람회로서 세계의 경제, 문화, 환경 및 과학기술의 성대한 모임이다. 이런 엑스포가 상해의 도시 발전에 주는 영향은 장기적이고 전 방위적인 것이다.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상해의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할 수 있고 인프라 건설과 관련 산업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상해의 국제적 지명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여 상해를 국제적인 경제, 금융, 무역과 항운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엑스포 개최는 대중의 생태의식, 과학정신과 인문소양을 높일 수 있고 상해의 도시문명건설과 인문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엑스포의 "도시는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슬로건에 대한 심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과학기술 창의와 문화 다원화 등의 이념 실천에 대한 부각을 통해서 상해는 분명히 진일보한 도시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기능을 개발하며 자신의 개성을 부각하여 도시 특유의 상하이파 풍채를 확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선진적이며 생태환경이 건강하고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등 종합적 실력이 강대한 새롭고 현대화된 국제 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1) 인프라 건설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며 도시의 혁신과 개조를 빠르게 한다.

엑스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해에서는 대량의 기초건설을 진행했으며 도시의 도로, 궤도교통, 기타 SOC시설의 건설과 개조를 가속화 했다. 11개의 궤도 교통선로가 정상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는데 총 길이가 420km이고 차량배치가 400개로 기본적으로 세계 선진국 궤도 교통의 수준에 이르렀다. 동시에 1,000여개의 택시정거장이 거리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8,000대의 고급 버스가 상해의 거리와 골목에서 달리고 있다. 그리고 중심지역에 에어컨 버스의 비율이 60%가 되어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과 쾌적성이 많이 제고되었고 도로가 막히는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 되었으며 교통도로망과 도로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상해에서 엑스포 개최를 기획하는 과정은 상해의 넓은 지역에 대한 개조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중심의 지역개발을 견지했으며 민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엑스포가 도시와 그들의 생활에 가져다 준 번영한 활기와 아름다운 변화를 느끼게 했다. 예를 들면 엑스포 이주를 통해 1만8천 세대가 위험하고 초라한 거주지에서 널찍하고 밝은 "엑스포 가원"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매 세대당 주거 면적이 본래의 30 로부터 75로 넓어졌고 거주조건과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다른 예로 엑스포의 건설계획에 따라 상해에서는 넓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조하고 11개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엑스포가 끝난 후 이런 운동장과 체육관은 국내의 여러 행사에 활용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오락과 신체 단련의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상해의 생태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더욱 확연하게 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정비도 가속화했다. 엑스포 제어범위 내의 여러 가지 오염물 배출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가정 오수는 모두 처리를 거쳐 방류되며 연기와 먼지는 99% 이상 줄어들 것이고 고체 폐기물은 94% 이상 줄이며 가정쓰레기는 모두 수집하여 처리하고 공장과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 생기는 소음도 제거 될 것이다. 황포강(黄浦江) 양안은 100억 달러를 들여 종합적 개발을 통하여 "어머니 강"을 동방의 "세느강" 으로 바꾸고, 건설 중인 "도시 삼림"은 상해의 1/3 경지를 임지로 만들 것이다. 2008년 말 상해의 1인당 평균 공중녹지면적은 12.5, 도시 녹지 비율은 36.17%, 녹화 복개율은 38%로 상승되는 등 도시환경 수치가 국제수준으로 올라갔다. 상해의 하늘은 더욱 푸르게 되었고 대지는 더욱 녹화되었으며 물은 더욱 깨끗하게 되었고 거주환경은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게 되어 새로운 현대적 국제 대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 관련된 산업의 확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며 경제의 좋고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역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엑스포 경제는 주최국과 주최도시에 거대한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풍부한 경제적 효과와 수익을 가져온다. 엑스포 개최 전에 우선 낡은 집을 철거하고 이주를 진행해야 하기에 건축업과 부동산 산업이 먼저 수혜를 받는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기간에는 관광객의 대량 증가에 따라 여행업, 상업, 교통업과 전시회 전람 업계 등이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물류 산업과 환경보호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개최 도시 입장에서 엑스포는 늘 도시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속장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3 2 1형식"⁴⁾의 산업융합 발전을 견지하고 국제금융·국제항해운수 중심의 건설과 더불어서 현대적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화를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를 형성시키는 방식이 상해 산업구조 조정의 전략적 방향이다. 상해 엑스포 개최는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과 선진적인 제조업 등 신흥공업의 확대에 중대한 계기를 제공하여 상해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상해의 경제를 건강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상해에서는 엑스포 개최를 위해 이미 여러 분야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는 대중교통, 관광시설, 도시건설,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해의 현재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이 투자가 선도하는 투자의 확대 규모는 직접 투자의 5~10배가 될 것이다. 이는 상해의 선진적인 제조업, 첨단기술 등 산업발전에 적극적인 추진작용을 할 것이다. 상해 엑스포 개최가 창출하는 직접적 서비스 수요는 물류, 컨퍼런스, 창의성 설계, 섭외 봉사 등 많은 업계를 포함한다. 이는 대량의 금융, 상업, 관리와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서비스 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며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매우 확대시킨다. 그 외에 상해 엑스포 개최기간에 7천만 명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식주, 관광, 쇼핑 등 소비도 매우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상해 서비스업의 발전에 거대한 추진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상에서 시사하듯이, 상해 엑스포 개최는 상해 산업구조를 최적화할 것이고 상해의 서비스 경제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상해경제를 좋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4) 제3차 산업(서비스산업)을 우선으로 발전시켜 국제 대도시의 표준(서비스산업의 경제점유율이 70%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도시의 종합기능을 고양하고 도시의 지명도를 제고하며 도시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대도시 건설을 촉진한다.

개혁개방이후 상해의 도시발전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의 경제는 이미 세계에 유입되었고 도시의 종합 경쟁력은 국내 여러 대도시 중 선두를 점하고 있다. 2008년 말 상해의 1인당 총생산액은 8,700달러로 도시의 성격이 공업기지에서 개방형, 국제화, 서비스 기능이 완비한 경제중심도시로 성공적으로 전환됐다. 세계경제 발전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해의 발전전략목표는 끊임없이 상승했는데 "하나의 머리, 세 개의 중심"으로부터 "4개의 중심" 과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의 건설로 바뀌었다. 엑스포 개최는 상해의 도시건설에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상해의 현대적 서비스업과 선진적인 제조업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도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세대교체를 앞당기며 경제중심도시의 종합 서비스기능을 강화하여 상해를 영향력 있는 경제서비스 중심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한,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고, 지역발전의 기술과 관념, 체제를 지탱해주는 창의성이 중심이 될 것이다.

예측컨대, 상해 엑스포 개최는 상해의 GDP 증가 속도를 연 평균 0.6% 높일 수 있으며 도시의 총체적인 역량과 종합 기능을 뚜렷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양자강 삼각주 지역과의 연계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양자강 삼각주 도시권"을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6번째로 가는 도시권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발전은 중국의 동부 지역과 양자강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전국 경제의 발전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상해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건설 되는데 견고한 기초를 다질 것이다. 그 외에 상해가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진행한 대규모의 도시건설, 인프라와 인력자본 투자, 엑스포 기간의 과학 기술 교류 등의 요소들은 상해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른 발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요소들은 상해가 종합적인 기능을 발굴하고 국제 지명도를 높이며 국제무대에서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해는 이번 엑스포의 기회를 바탕으로 엑스포의 효과와 반응을 이용하여 상해의 도시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종합적 역량, 도시 기능, 사회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실현 할 것이다. 도시 기능이 끊임없이 증대하고 국제 경제, 무역, 금융, 수송 운송 등 분야에서 중심지위가 점점 견고해 짐에 따라 상해는 세계에서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4) 상해의 도시 정신을 수립하고 시민의 종합적 자질을 높이며 도시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한다.

한 도시의 종합적 역량은 경제와 과학기술 등에서 나타나는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혁, 역사적 전승, 도덕수준, 인문정신 등에서 나타나는 소프트 파워도 포함한다. 세계적인 도시의 발전전략 중에서 상해는 기술의 창조, 제도의 변혁에 의거하여 시장화, 국제화, 정보화, 법제화의 길을 걸어야 하며 경제성장은 외연으로부터 내포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도시기능의 방침도 제조형으로부터 서비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해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도시기능의 방향 전환은 소프트 파워의 지지가 없으면 안된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후 상해시 위원회와 상해시 정부는 이미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엑스포를 상해 도시발전의 중대한 기회로 삼아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상해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에 대한 관리, 경영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탁월함을 추구하고 혁신적이고 대범하고 겸손하자” 를 내용으로 하는 상해의 도시정신을 수립하여 이로써 시민의 종합적 자질을 높이며 도시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게 했다.

엑스포 개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상해는 시종일관 도시의 문명정도와 시민의 종합적 자질 육성에 중점을 두고 많은 인력과 물력, 재력을 투입했다. 몇 년 사이에 "과학적인 발전관"에 기초하여 상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견지했다. 전체 시민에게 이로운 공중문화 서비스 체계, 경제발전, 산업 업그레이드와 어울리는 문화 산업 체계, 우수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문화생태 환경과 국제화 대도시 기능구조와 정합되는 문화 시설 체계 등을 힘써 건설하여 도시 문명 건설이 장족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고 도시 정신의 수립에 견고한 기초를 다졌다. 동시에 "엑스포를 함께 건설하자" 등의 활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공중도덕이 제일이라는 원칙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노동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며 과학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요구 하였다. 또한, 사회의 공중도덕, 직업도덕과 가정 미덕을 핵심가치로 하여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상도덕 정립 활동을 전개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애국주의 정신과 분발된 사업정신, 사회의 공중도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등 시민들의 종합적 자질이 크게 제고되었다.



엑스포를 계기로 민족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도시의 역사적 문화를 전수하고 계승하며 상해의 도시 정신을 배양하고 실천하는 등 시민들의 종합적 자질과 도시의 문명정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것은 상해의 국제 대도시화와 "탁월함을 추구하고 개명하고 영명하며 대범하고 겸손하자"는 주최도시 시민의 문명하고 우수한 이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도시를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엑스포의 주제를 성공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상해가 미래에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정신적 동력을 창조할 수 있다.

3. 엑스포가 청년들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

(1) 엑스포는 청년들이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1) 엑스포는 현시대 청년들에게 세계문명을 이해하고 여러 나라 문명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서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밝지 못하다. 경제, 교통, 언어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부분 중국 청년들은 외국에 가보지 못했으며 세계의 선진문명과 문화에 대해 직접적인 인식이 없다. 외부세계에 대해 중국의 청년들은 실제로 잘 모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호칭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하기에 외래문화를 직면할 때 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판단력이 부족하게 되어 무조건 외국의 것을 숭배하거나 맹목적으로 외세를 배척하는 경향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을 잃게 된다. 엑스포 개최는 매우 많은 중국청년들이 외국에 가지 않고도 세계 선진문명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여러 나라의 주류 문화를 알 수 있게 하여 중국문화와 외래문화를 골고루 받아들이고 보존하게 할 수 있다.

(2) 엑스포는 현시대 청년들에게 최신 과학기술을 접하고 창의적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엑스포는 인류가 이룩한 최신의 발명과 창조, 과학기술의 진보를 전시하는 무대로서 축음기, 전화, 타자기,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발명들이 모두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비록 이런 발명들이 전



시된 후 일정한 시간 내에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청년들이 과학에 대해 공부하고 창의성에 대한 자극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상해 엑스포라는 과학기술의 성대한 행사는 필연적으로 많은 중국청년들을 깊이 감동시킬 것이며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어 그들의 창의적인 의식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 엑스포는 현대 청년들에게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공민의 책임을 실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해 엑스포 개최는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 후 중국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일 영향력 있는 국제 행사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의미가 크다.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상해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사이며, 전 중국인의 대사이다. 이런 큰 행사는 중국 청년들, 특히 상해청년들에게 역사상 전례 없는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상해 엑스포는 적어도 핵심 자원봉사자가 22만 명이 필요하다. 즉, 엑스포 단지 내에 7만 명, 시내 각종 교통 터미널에 15만 명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봉사 기간은 전시회가 진행되는 6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 인원과 긴 봉사시간은 북경 올림픽 개최 때보다 규모가 더 크다. 청년들은 이런 자원봉사자의 주력으로서 공헌과 공익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민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2) 엑스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준다.

엑스포는 문명의 축제이고 과학기술의 축제이며 창의성의 축제이다. 2010년 상해 엑스포 개최는 중국 청년들, 특히 상해 청년들에게 기쁜 일로써 청년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상해 청년들은 아직도 이러한 요구에 미흡한 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청년들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들의 문명소양이 더욱 증진될 필요가 있다. 상해 엑스포는 국제적인 전시회로서 여러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 기술과 문화를 전시하는 외에 주최국과 주최도시의 풍채와 용모, 인문 정신을 전시한다. 사람의 풍채, 용모, 정신은 그 나라와 도시의 문명정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사람을 전시하는 주체로서 일상적인 행위규범의 여러 방면에서 오랜 동안 사회의 불량한 풍기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결함과 부족이 있는



데, 이는 엑스포 도시의 문명을 전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규범화하고 나 무랄 데 없는 청년들의 사회적 행위로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의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교류능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엑스포는 인류 교류의 성대한 행사이기도 하다. 2010년 상해 엑스포의 이념은 "이해, 교류, 즐겁게 모이고 합작"이다. 이 네 가지는 교류가 기초가 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현시대 상해 청년들의 교류능력은 외동아들 혹은 외동딸이기 때문에 선배들보다 많이 뒤떨어지며 세계청년들보다도 많이 뒤떨어진다. 어릴 적부터 가정의 중심지위에 있었기에 자기중심의 심리를 많이 갖고 있고 교류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과 각도에서 고려하는 의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열정도 부족하며 국제교류의 능력은 실제 체험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취약하다.

셋째, 청년들의 창의적 의식을 계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엑스포의 핵심이념이고 국가와 인류문명 발전의 동력이다. 엑스포의 전시품도 창의성이 있어야 하고 엑스포를 기획하는 것도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엑스포에 참여하는 사람과 엑스포의 관중들도 창의성 시각과 창의성 의식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4대문명의 발생지이지만 근·현대 세계의 중요한 발명은 중국과 거의 상관이 없다 할 수 있다. 그 배후에는 청년들의 내재적 민족 창의성 의식이 부족한 원인도 있다. 엑스포를 참관하는 것은 기이한 사물을 찾아내거나 흥에 겨워하는 활동이 아니라 당연히 창의성 증진의 목적을 가진 배움이어야 하며 이는 모든 뜻있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자아요구로 발현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들의 공공이익 이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엑스포는 성대한 국가적인 행사이기에 청년들은 마땅히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자세로 이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09년 10월까지 엑스포 공식 사이트, 상해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 사이트, 상해엑스포 자원봉사 사이트 등 6개 사이트에서 2010년 엑스포에 자원봉사자 신청을 한 사람이 44만 명을 초과했는데 이 중에서 80% 이상이 청년들이었다. 비록 이 수치가 큰 것이긴 하지만 상해 청년단체의 방대한 회원 수와 비교해 보면 참여비율이 낮다. 또한, 대부분 자원자는 직장이나 단체에서 동원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해청년들의 공공이익 이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중국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기회이고 상해가 도시를 발전시키는 기회이며 청년들이 발전하는 기회이다. 현시대 청년들이 엑스포 개최를 기회를 삼아 개인의 발전을 모색하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잘 해야 한다.



- (1) 청년들은 차이를 직시하고 용감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비록 2010년 엑스포를 유치 하긴 했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서방의 선진국과 많은 방면에서 아직도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 청년들이 선진국 청년들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객관적 원인이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최종 목적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며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청년들 측면에서 볼 때 발전하는 비결 중의 하나는 엑스포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선진국의 청년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자기반성을 용감하게 하고 노력하여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청년들은 엑스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선진문명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자신의 부족함에 주목하고 지나치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지도 말며 객관적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냉정하게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 (2) 청년들은 분발하여 선진국을 따라 잡으며 나날이 새로워 져야 한다. 선진국과의 차이를 찾았다는 것은 따라잡을 목표를 찾았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엑스포에 참여하여 세계의 선진문명과 선진국의 진보적인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배우며 여러 나라 청년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이념을 수립해야 하며 시야를 넓히고 창의적 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상해 엑스포라는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전시회를 참관하는 것 외에도 여러 매체와 경로를 통하여 엑스포가 전달하는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엑스포에서 나날이 전문이 얼마나 늘었고 지식을 얼마나 획득했으며 얼마나 많은 창조적인 의견이 떠올랐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엑스포를 시작으로 하여 외부 세계로 향한 배움의 창문을 열어야 하고 교조적인 학습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천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을 추구해야 한다.
- (3) 청년들은 마음에 목표를 두고 기회를 잡아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2010년 상해 엑스포는 현시대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발전의 주체인 청년들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최대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상해 엑스포에서 나타나는 세계 발전의 최신 추세를 예민하게 꿰뚫어 보고 국가와 상해의 발전에 결합하여 자신의 발전방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하고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자신의 발전을 시대 진보, 나라 진보, 민족 진보, 도시 진보의 역사적 추세에 유입시켜 새로운 세기 발

전의 기선을 잡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현시대 청년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다 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0년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청년들에게 절호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도전을 준다.

"창의성", "조화로우며", "진보"를 내용으로 하는 상해 엑스포는 청년들이 발전하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는 현시대 청년들이 상황과약을 잘 해서 엑스포의 기회를 단단히 잡고 도전에 용감히 직면하여 엑스포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독려하는 것이다. 현시대 청년들은 엑스포의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시야를 넓히고 자질을 높이며 재능을 계발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리모델링하여 청춘의 풍채를 전시하며 엑스포의 정신을 발휘하여 더 아름다운 도시, 더 아름다운 생활과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 제2절 연구 배경

1. 연구취지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중국정부가 주최하고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세계 여러나라 국민들의 성대한 축제이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상해에 모여 "도시는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주제에 따라 도시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전망할 것이다. "창의성"과 "융합"을 기조로 하는 2010년 상해 엑스포는 현시대 청년들의 사고방식, 생활관념, 인생관, 가치관, 미래의 성장 발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현시대 청년들은 엑스포에 어떤 인식과 바람을 갖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엑스포를 맞이하고 참여하며 청년들의 면모를 어떻게 창조하고 나타내겠는가? 이런 모든 것은 상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시행과 조화로운 도시,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청년들의 건강한 발전에 모두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의미가 있다.

청년들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은 서로 연관이 된다. 도시와 청년간의 상호작용과 공동발전은 줄곧 현시대 상해 청년들을 연구하는 중요한 시각이었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결정체를 받아들여 보존하는 곳이며 부단히 진화 발전하고 성장하는 생명체이다. 도시는 인류 사회의 진보를 추진했으며 청년들을 포함한 도시인의 생활수준 개선과 제고를 추진했다. 바꾸어 말하면 청년들은 도시에서 제일 활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집단으로 도시발전과 도시 매력을 드러내는데 매우 큰 추진력과 영향력이 있는 계층이다. 도시는 청년들을 배양하고 청년들은 도시를 건설한다. 도시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기초를 제공하며 청년들은 도시의 아름다운 미래에 동력을 제공한다. 양자의 상호작용은 도시와 청년들이 함께 발전하고 공동으로 진보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창조한다. 도시와 청년 간에 이런 상호작용의 규칙을 어떻게 더 잘 인식하고 글로벌 시대에 이런 상호 작용에 어떤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겠는가? 엑스포의 "도시"라는 주제와 결합하고 "엑스포를 향한 상해 청년들"을 제목으로 하는 연구가 우리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2010년 상해 엑스포는 미래 도시의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며 "조화로운"이 핵심적 이념이다. 상해 엑스포를 계기로 현시대 청년들의 조화로운에 대한 이념과 "조화로운 도시" 건설



에서의 영향과 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상해에서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에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 현재 세계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전 세계가 하나되는 과정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시대 청년들이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 사람과 세계, 역사와 미래 등 다양한 관계속에서 "조화로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엑스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조화로운"이라는 이념을 어떻게 자신의 행동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들은 "조화로운 도시"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어떤 상상으로 자신의 청춘의 꿈을 창조하고 발휘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은 분석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엑스포를 향한 상해 청년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1999년에 상해청년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상해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공 행사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들에 대해 진행한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의 시각과 제목 선택은 강한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0년에 개최되는 상해 엑스포가 개최 직전에 와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상해시 청년들이 엑스포에 대한 인식과 참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대책 또는 건의에 따라 때 맞게 배치를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동원, 조직과 인도를 통해서 활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청년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과학적인 발전관을 토대로 하여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며 엑스포를 순조롭고 원만하게 시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창출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서 이번 엑스포의 기획과정에서 거둔 단계적 성공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가운데서 효과적인 동원 매커니즘, 서비스 매커니즘, 협동 매커니즘 등을 찾아내고 중대한 사회적 행사와 청년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 등을 탐색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향후 청년들이 유사한 사회적 공공 활동에의 참여, 청년 자신의 발전,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엑스포는 세계 각국이 사회,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성과를 전시하고 교류하는 성대한 행사로서 인류 문명의 발전성과를 결집하고 인류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토론하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상해의 2010년 엑스포는 조화로운 도시의 구축을 이념으



로 하고 5개의 소주제-도시의 다양한 문화의 융합, 도시경제의 번영, 도시 과학기술의 창의, 도시 지역사회의 리모델링, 도시와 시골의 상호작용 등-로 구분한다. 도시 시대에 들어선 인류 사회의 도시문제, 도시 발전패턴과 도시의 아름다운 생활의 앞날 등에 대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엑스포의 주제를 중심으로 엑스포와 현시대 청년들의 관계를 둘러싸고 청년들이 엑스포에 대한 이해와 참여하고 공헌하는 상황을 조사하며 청년들의 세계관, 가치관, 사고 패턴, 생활패턴, 창의성 역량과 성장발전에 대한 영향을 중점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도시건설과 청년들의 건강한 발전, 사회적 공공 행사에 대한 참여와 청년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창의성"과 "조화로운"이라는 주제를 전수하고 계승하며 엑스포의 중대한 기회를 잡고 도전을 맞이하며 더 아름다운 도시와 생활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예측한다.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엑스포 : 새로운 무대를 만든다.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시대 청년들의 엑스포에 대한 이해 정도, 인증 정도와 주시하는 정도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며 상해 청년들이 엑스포에 대해 어떤 태도, 어떤 인식과 행동으로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청년들이 주인공 작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엑스포 주최자의 역할을 잘 하겠는가와 관련된 제의를 제출한다.

(2) 엑스포 : 새로운 이념을 품는다.

이 장에서는 주로 현시대 상해 청년들이 엑스포에 유입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개방의식, 공중 도덕의식, 법치의식 등 현대 국민의식과 사유를 배양하고 진급시키는 상황을 묘사하고 분석한다.

(3) 엑스포 : 새로운 유행을 전개한다.

이 장에서는 주로 현시대 상해 청년들의 생활과 오락, 국제 왕래와 생태 환경 보호 등을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엑스포 배경 하에 현시대 상해 청년들의 새로운 유행을 전시하고 현재 청년들의 생활 유행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상세히 논술 한다.

(4) 엑스포 : 새로운 생활을 구축한다.

이 장에서는 설문 조사의 기초에 엑스포의 주제를 결합하고 도시사회학과 관련된 이론을 운용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현대 청년들이 조화로운 가정의 건설, 조화로운 지역 사회건설의 추진, 도시와 시골 사이 조화로운 상호 작용의 추진 등에서 중요한 역할과 작용을 발휘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엑스포 정신의 영향 하에서 그들은 용감하게 사고하고 창의성, 용기가 있으며 아름답고 새로운 도시 생활을 창조하고 있다.

(5) 엑스포 : 새로운 창조를 복돋워 준다.

이 장에서는 엑스포에 참여하고 유입하며 엑스포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상해 청년들이 과학 기술 창조성, 문화의 창의와 창업 실천 등에서 창의적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창의적 능력을 제고하며 적극적으로 창조 실천에 참여하여 창의성 나라와 창의성 도시의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을 주로 분석한다.

3. 연구방법

이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결합한 것이 연구의 기본방법이고 설문 조사와 개별 방문 취재를 결합하였다.

(1)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어느 한 단체의 기본 상황과 전체적 특징을 묘사 할 수 있고 단체 내부의 다른 부분 사이와 서로 다른 단체 사이를 비교 분석 할 수도 있으며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해석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번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이다. 설문 조사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보고서는 설문 설계, 표본 추출 설계, 조사의 실시와 수치의 처리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했다. 대량의 문헌자료에 대해 열독 분석한 후 연구팀은 "총-분-총"의 절차에 따라 설문의 초고를 편성했는데 즉 : 연구팀은 우선 연구할 주제, 상대의 특징, 설문 편성의 목적과 원칙, 설문의 문제 유형, 설문의 언어 풍격 등을 명확히 한 다음 여러 구성원들은 연구 전문성에 따라 장을 나누어 설문을 편성하고 마지막에 설문의 초고를 합성했다. 설문은 14개의 기본정보자료문제와 60개의 조사문제로 구성되었는데 객관식 단답형과 객관식 다답형 문제, 순서배열문제, 괄호 넣기 문제와

차츰 늘어나는 양 도표 등 5가지 문제 유형이다.

견본의 수량을 확정할 때 지나온 여러 해 청년들에 대한 조사방안을 계속 사용했고 보수적인 예측방법을 사용했는데 신뢰구간이 95%, 오차의 허락이 2%, 견본의 용량이 2,401개 이다. 사회조사의 이론에 따르면 비교적 큰 견본은 규모가 일정한 수량을 넘었을 때(일반적으로 2,000개)표본 추출 오차의 변화가 매우 작은데 바꾸어 말하면 2,000개 견본과 2,401개 견본의 총체적 대표성은 기본상 일치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지를 2,000개 내보냈다. 표본 추출하는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단계로 정비례 층화 추출 방법을 채택하여 견본이 연구의 실제 상황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게 했다. 총 인구와 청소년 인구 수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우리는 우선 28개 단위(8개 현, 12개 대학교, 8개 청년 근로자 계통 단위)를 1급 견본으로 한 다음 1급 견본에서 2급 견본을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2급 견본에서 일정한 수량의 개체를 뽑아서 최종 조사 대상자로 선택했다. 표본 추출 조사는 스스로 설문에 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임의로 내보낸 2,000개 설문지에서 회수한 유효한 설문지가 1,962개로 유효 회수 비율이 98.1%이다. 견본의 대표성으로 볼 때 이번 조사 대상자는 인구학 특징에서(성별, 연령 등) 상해 청년들의 총체적 특징과 비교적 일치했다. 견본의 구체적 분포 상황을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수	변수 수준	인수	백분율(%)
성별	남	985	50.2
	여	952	48.5
	무효값	25	1.3
독자 혹은 독녀	yes	1388	70.7
	no	556	28.6
	무효값	18	0.9
연령별	90년	382	19.5
	80년	1319	67.2
	70년	217	11.1
	무효값	44	2.2

혼인상황	미혼, 싱글	1130	57.6
	미혼, 연인이 있다.	418	21.3
	기혼, 출산하지 않았다.	187	9.5
	기혼, 출산했다.	205	10.4
	결혼 했었다.(이혼)	6	0.3
	무효값	16	0.8
교육정도	초등학교 혹은 이하	8	0.4
	중학교	27	1.4
	고등학교	171	8.7
	전문계 고교	150	7.6
	전문대학	413	21.0
	학부	953	48.6
	대학원	227	11.6
	무효값	13	0.7
정치면모	중국공산당 당원	504	25.7
	중국공청단 단원	1199	61.1
	민주당파	18	0.9
	모두 아니다.	228	11.6
	무효값	13	0.7
호적상황	상해 호구	1411	71.9
	상해 거류증	129	6.6
	다른 성 도시 호구	240	12.2
	다른 성 시골 호구	161	8.2
	무효값	21	1.1
상해에 있는 시간	줄곧 상해에 있었다.	1222	62.3
	다른 곳에서 상해에 왔다.	716	36.5
	무효값	24	1.2
종교 신앙	있다.	184	9.4
	없다.	1765	90.0
	무효값	13	0.7

직장별	국유/집체 기업	348	17.7
	민영 기업	218	11.1
	3재(중외 합자/합작 기업, 외국 독자)기업	65	3.3
	개체자유직업	16	0.8
	정부기관/사업단위/사회단체	262	13.4
	재학 중 학생	945	48.2
	현재 일자리가 없다.	65	3.3
	기타	23	1.2
	무효값	20	1.0
직업별	행정 영도자 층	18	0.9
	관리 층(지배인/공장장/총감독 등)	33	1.7
	전문인원(교사/의사/변호사 등)	91	4.6
	기술인원	100	5.1
	정부기구/국유기업의 보통직원/공무원	466	23.8
	민영기업/3자 기업의 보통직원	188	9.6
	체력 노동자	27	1.4
	자아 고용자	11	0.6
	재학 중 학생	917	46.7
	취업 못했거나 혹은 무직	87	4.4
	무효값	24	1.2
	가정 월 수입	1000원 이하	257
1001-1500원		139	7.1
1501-2000원		201	10.2
2001-3000원		328	16.7
3001-4000원		228	11.6
4001-5000원		254	12.9
5001-10000원		334	17.0
10001-15000원		98	5.0
15001-20000원		31	1.6
20001원 이상		37	1.9
무효값		55	2.8

거주 지역별	노동자 새 마을	161	8.2
	이주자 안치 단지	162	8.3
	분양 주택	853	43.5
	구식 골목길 주택	144	7.3
	별장	30	1.5
	신식 골목길 주택	115	5.9
	기타	338	17.2
	무효값	159	8.1
거주연한	반년 안된다.	99	5.0
	반년이상 1년 이내	242	7.9
	1-3년	469	23.9
	4-6년	339	17.3
	7-9년	197	10.0
	10년 이상	461	14.6
	무효값	155	7.9

(2) 개별방문 면담조사⁵⁾

정량 연구와 정성 연구를 결합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량 연구를 기초로 하는 설문 조사로 보고서 내용을 구성했고 정성 분석을 기초로 하는 개별 사례 방문 취재로 개별 사례 보고서를 구성했다. 개별 사례 보고서는 평범하게 일률적으로 논하는 방법을 버리고 "요점"을 중심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성을 중시하였기에 설문 조사의 약점을 보완했다. 개별 사례 방문 취재의 대상지는 재학 중인 학생들과 회사의 화이트칼라 계층, 청년 창업자, 엑스포 건설자, 엑스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했는데 그들은 상해의 청년 단체에서 대표성이 있다 할 수 있다. 개별 사례 방문 취재는 엑스포를 주제로 하고 방문 취재 대상자의 직업, 교육, 연령, 정치 면모 등 배경

5) (역자 주) 개별 면담조사 결과는 중국판 『2009 상해청년발전보고』 중 "제2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 번역본에서는 개별 면담자료는 제외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번역·편집하였음.

과 결합하여 중점은 대상자가 엑스포에 대한 이해와, 엑스포에 참여하고 유입되며 엑스포를 함께 나누고 엑스포에 공헌하며 엑스포에 대해 어떻게 전망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분석 하는 것이다. 방문 취재 문제에는 공통성 문제도 있고 개성적인 문제도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이 유기적으로 통일 되도록 노력했으며 방문 취재의 질을 확보 했다. 이번 방문 취재는 고위급에 속한 청년들에 대한 방문면담을 강화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심화와 연구의 철저함 및 세분화에 도움이 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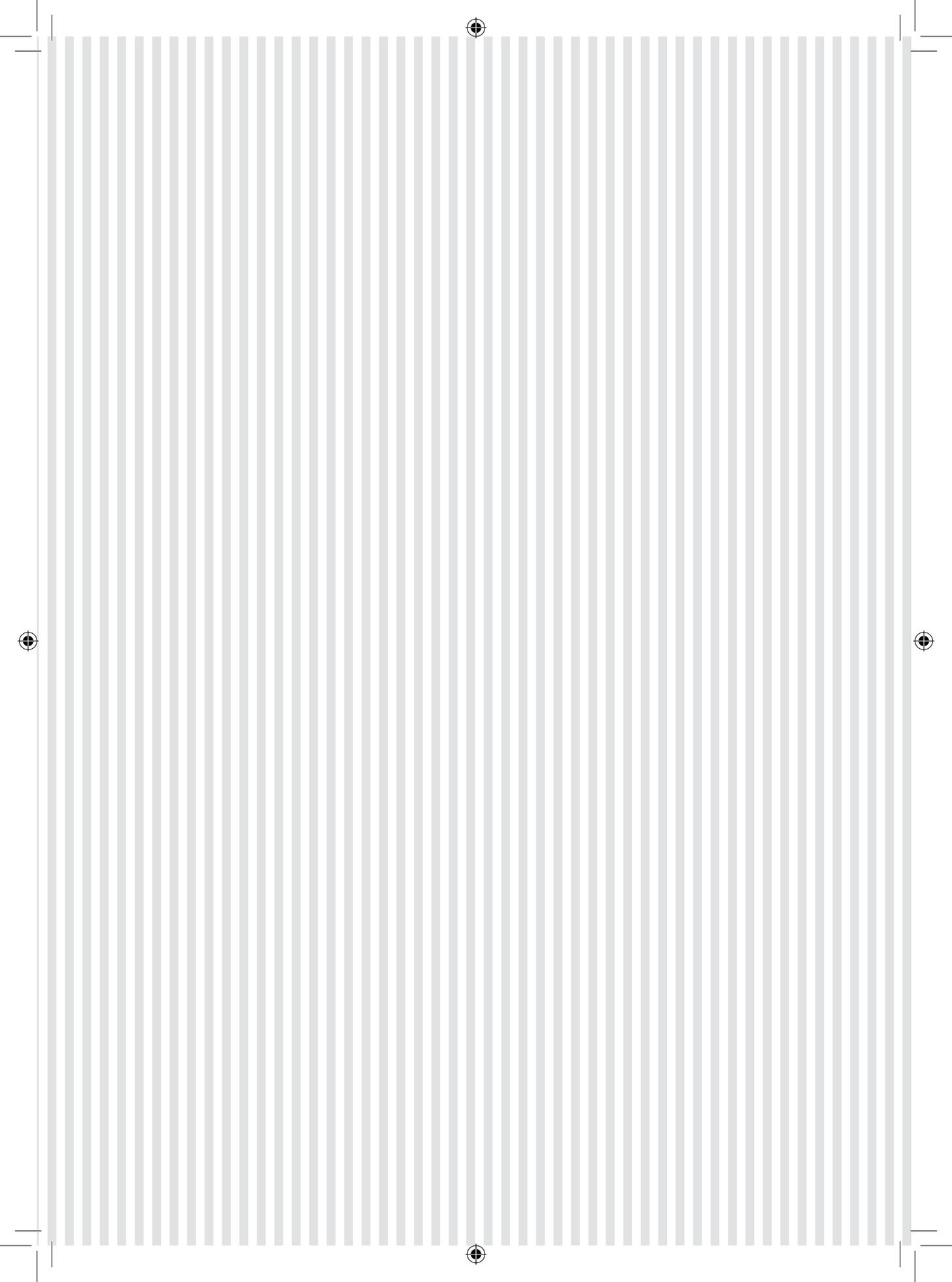
표 1-2. 개별방문 면담 대상자의 특성

이름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현재 신분
孙**	남	27	학부	모 매스미디어 회사 이사장
童**	남	28	대학원	상해 모 대학 청년 교사
张**	남	25	대학원	상해 모 대학 대학원 학생
李**	남	27	학부	모 그룹 고급 화이트칼라
严**	남	30	학부	상해 모 자원 서비스 센터 이사장
刘**	남	16	고등학교	상해 모 고등학교 학생
郑**	남	32	대학원	상해 모 그룹 단위 서기
王**	여	25	학부	모 주민지역 청소년 사회복지사
尤**	남	20	학부	엑스포 첫 번째 지원자
朱**	남	31	학부	엑스포 관리국 직원

(3) 문헌 연구

이 보고서는 연관되는 문헌에 대한 연구의 기초에서 분류와 계층을 결합하고 횡과 종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연구 과제에 대해 청년학, 문화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법학 등 학과를 포함한 문화, 학과, 연대를 넘어서 분석했으며 연구의 과학성, 규범성과 종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구했다. 연구 중에서 관련된 문헌은 주로 엑스포의 주제와 관련된 도서와 문장을, 자료로는 공청단 상해시위에서 여러 해에 걸쳐 계속 편집하여 출판한 "상해 청년 발전 보고서", 중국청소년연구중심과 상해청년연구중심 등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주제 보고서 가운데 엑스포의 주제와 시대 특징, 상해 청년들의 특징을 결합했다. 이는 설문 조사와 개별 사례 방문 취재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

론적으로 상해 엑스포와 청년들의 성장 발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은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다.





▶▶▶ II .엑스포 : 새로운 이념을 품는다



정보화 시대인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세계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많아졌고 세계는 개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 정치와 문화의 진일보한 교류에 따라 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점차 심화되었다. 전 세계 경제의 일체화, 문화 다원화 추세는 의심할 바 없이 현시대 청년들이 발전하는 제일 큰 시대 배경 중 하나이다. 이런 융합의 배경 하에서 진행되는 2010년 상해 엑스포는 많은 국가와 국제 조직이 참여하는 인류가 사회,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취득한 성과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대형 전시회이다. 이는 상해와 중국에 여러 나라의 선진적인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가져다주는데, 이는 틀림없이 상해 청년들의 개방 의식, 공중도덕 의식과 법제 의식 등 새로운 이념의 형성과 발전에 거대한 추진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 제1절 상해 청년들의 개방의식



1. 청년들의 애국심



애국심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 갖는 깊은 감정으로써 자신이 성장한 국토와 민족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그리움의 감정이다. 중국은 5,000여년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 나라로서 애국주의는 중화 민족의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중국의 사회 진보를 추진하는 거대한 힘이며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정신적 기둥이다. 청년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민족의 희망이다.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문화가 다원화된 인터넷 시대지만 청년들의 애국심과 애국 열정이 여전히 정열적이라는 것은 현시대 청년들의 큰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부흥하는 중국의 깊은 응집력과 구심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절에서는 엑스포를 맞이하고 기획하는 배경에서의 상해 청년들의 애국주의 심경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1851년 런던에서 개최한 제1차 엑스포에서 중국의 상인 徐榮村은 자신이 생산한 12봉지



"荣记湖丝"(명주실)을 런던에 운송하여 전람회에 출품했는데 이 전시품은 동시에 대상, 금상, 은상을 받았고 영국 여왕이 친히 상을 수여했다. 이 일은 전시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158년 되는 엑스포 역사에서 "荣记湖丝"(중국 청나라 말기에 생산되던 명주 실, 1851년 엑스포에 전시되었고 "우수상"을 수여받은 상품)부터 "贵州茅台"(귀주 모태주), "常州梳篦"(알레빗과 참빗), 그리고 탑재 로켓, 인공위성까지 중국 사람들은 매년 전시회에 참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조국의 최신 과학 기술 성과와 문명의 형상을 전시했다. 중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엑스포에 참여하며 전 세계에 중화 문명과 중국의 문화를 전시하여 전 세계가 중국을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게 했고, 이러한 참여정신과 개방적인 의식이 바로 애국심의 구현이다.

중국을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백 년 전부터 생각해 왔다. 梁启超(중국 청나라 말기 사상가, 정치가)가 1902년에 발표한 정치소설 "中国未来记"에서는 60년 후에 중국 상해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고 1905년 소설가 吴趼人(중국 청나라 말기의 소설가)이 쓴 공상과학소설 "新石头记"에서는 엑스포가 浦东(상해의 포동)에서 개최된다고 했으며 상해 작가 陆士谔(100년전 엑스포가 중국에서 개최될 것을 예언한 작가)가 1910년에 발표한 소설 "新中国"에서도 浦东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예언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서 그들이 조국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큰 포부를 볼 수 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중국은 엑스포를 개최할 능력이 없었지만 오늘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종합 국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지위가 나날이 제고되고 있기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더 이상 꿈만이 아니게 되었다. 2002년 12월 3일, 중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해서 상해가 2010년 엑스포의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백년의 꿈이 현실로 되었고 중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되었으며 상해 청년들은 주최자로서 더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있다.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현시대 상해 청년들의 애국주의 열정을 최대한도로 불러 일으켰다. 2009년 5월, 상해 엑스포 개최를 1년 앞둔 기간에 공청단 상해시위는 중국청소년연구중심과 연합하여 상해의 14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2010년 엑스포에 대해 기대가 크며 애국주의 감정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95.7%의 청년들은 "나는 중국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 고 했는데, 이 통계수치는 현시대 상해 청년들의 강렬한 애국주의 심경을 충분히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엑스포는 상해에 속하며 또한 중국에 속한다. 상해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하여 함께 분투한 결과이다. 2000년 8월에 중국 국내 통계부서에서는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 했는데 94.4%의 사람들이 중국의 엑



스포 개최 신청을 지지했고 92.6%의 사람들이 중국은 엑스포를 개최할 능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시기 갤럽여론조사의 결과도 중국 민중들의 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율이 90% 이상으로 나왔다. 2007년 9월, 상해 엑스포 국내 참여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 되었는데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중국 전시지역 내에 여러 성시관을 설립하여 중국의 31개 성에 전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성과 시는 자신의 특색자원과 도시 발전의 특색에 따라 전시장소를 스스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했다. 상해 엑스포 관리국 주재 발취부 부장은 중국 국가관의 전시 주제 "도시 발전 중에서의 중화 지혜"에서의 "지혜"는 중화민족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준 사상, 정신, 관점, 방법 인데 주로 "自强不息、厚德載物、師法自然、和而不同"(스스로 끊임없이 강하게 만들고, 덕을 쌓은 위에 물질적인 발달을 피하며, 대자연에서 배우고, 화목하게 지내지만 쉽게 따르지 않는다)등 방면에서 표현된다고 했다. "여러 성의 주제 전시는 바로 중화 지혜에 대한 제일 살아 움직이는 설명이며 상해에 건설한 중화문화의 '백화원'이다." 2010년 엑스포가 가까워짐에 따라 "함께 엑스포의 주인이 되고 중국의 풍채를 함께 전시하자"는 운동이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행동의 주체는 대부분 청년들이다. 애국주의 깃발 하에 상해 청년들은 상해의 도시정신을 계승하여 전국 여러 성 청년들과의 교류와 합작을 통해 엑스포라는 큰 무대를 함께 건설하고 있으며 중화민족 문명의 진보와 개방된 새로운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정신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다.

2. 청년들의 국제적 시각

개혁개방과 함께 성장한 신세대 청년으로서 현시대 청년들의 애국주의 심경은 강하면서 이성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이성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그들이 폭넓은 국제적 시야와 개방적인 국제의식을 구비하게 했다. 국제관은 다국적 사무 혹은 국제 사무에 대한 이해로서 민족의식과 상대적인 것이다. 국제의식은 한 나라의 공민 혹은 사회단체가 본국과 다른 나라와의 교류,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발전과 국제 형세의 발전에 대해 관심 갖는 정도와 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등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국제의식은 국제사회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의식은 우리 청년들에게 중국 문제에 대한 논술, 이해와 사고에 넓은 시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시대 세계 문제에 대한 사고도 심도가 있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국제 시야와 국제 의식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으로 전 방위적이어야 하며 정부간, 민간단체간, 심지어는 개인들 사이로 널리 퍼져야 한다. 청년들은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체적으로 배양해야 하고 주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세계와 인류의 발전을 이해하며 개방되고 평온한 자세로 공정하게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 전통과 사회풍속을 대하고 존중해야 하며 인류의 우수한 문명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엑스포 개최는 상해 청년과 전국 청년들에게 넓은 무대를 제공하여 건전한 국제의식과 세계관을 배양하게 한다. 국제화 대도시인 상해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더 나아가려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주체적으로 국제화 대도시의 청년의식을 배양하고 시야를 넓혀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완벽하게 해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제화 대도시의 주인공으로서 엑스포에 유입되고 세계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80년대부터 특히 90년대에 이르러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세계경제활동은 국경을 뛰어넘어 대외무역, 자본유동, 기술이전, 서비스제공 등의 방식으로 서로 의존하고 연관되는 등 전 세계적인 총체 경제가 형성되어 어느 나라의 경제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연말부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를 볼 때 비록 미국이 맨 먼저 재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위기는 짧은 시일 내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되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으로 볼 때 경제 글로벌화는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발전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지만 큰 잠재적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 도시는 경제 변혁과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서 국가경제의 반 이상의 경제활동을 창조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줄곧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생활하는 청년으로서, 특히 국가의 경제중심, 무역중심인 상해에서 생활하는 청년으로서 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도시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경제 글로벌화가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다." 에 대한 태도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79.4%가 이 관점을 인정하는데 그 가운데서 33.1%가 "매우 그렇다" 고 하였으며 46.3%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볼 때 청년들이 경제 글로벌화의 세계에서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러한 사회배경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3.7%의 조사대상자들은 "경제의 글로벌화는 전 세계에서 자금, 기술, 상품, 시장, 자원, 노동력 등을 유효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는 관점을 인정하였고 67.3%는 "경제 글로벌화는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상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는 관점을 인정하였으며 73.9%는 "경제글로벌화는 세계적 대문화의 출



현과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을 인정하였다. 상해 청년들은 경제 글로벌화가 초래할 좋은 점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다. 청년들은 글로벌화가 개발도상국에 절호의 발전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세계 큰 시장의 형성은 도시경제를 풍부하게 하고 동시에 점진적인 경제 글로벌화가 세계 여러 나라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무대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표II-1참조).

표II-1. 상해 청년들의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져다준 기회'에 대한 인식(%)

	경제의 글로벌화가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전세계에서 자금, 기술, 상품, 시장, 자원, 노동력 등을 유효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경제글로벌화는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질 좋고 값싼 상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글로벌화는 세계적 대문화의 출현과 발전을 촉진시킨다.
매우그렇다	33,1	35,6	20,1	26,0
그렇다	46,3	48,1	47,2	47,9
잘 모르겠다	17,7	11,7	23,7	18,4
그렇지 않다	2,1	3,5	6,8	5,4
전혀그렇지않다	0,9	1,0	2,3	2,3
계	100%	100%	100%	100%

직업유형별로 경제 글로벌화가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초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응답을 구분해 보면, 재직청년들과 재학청년들의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별 차이가 없다. 각각 31.3%와 36.8%가 매우 그렇다고 인정했고, 미취업 청년들은 14.9%에 불과하다. 원인을 보면 미취업 청년들은 재직청년들처럼 안정된 직업이 없으며 경제 글로벌화가 초래한 시장경쟁의 치열함을 직접 체험하였기에 "매우 그렇다"는 태도가 좀 소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표II-2에서 모든 유형별 청년들의 "그렇다" 응답 비율은 46% 가량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상해 청년들은 직업유형과 관계없이 경제 글로벌화가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II-2 참조).

표 II-2. 직업유형별 상해 청년들의 '경제 글로벌화가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초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인식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재직청년*	31.3	46.2	19.0	2.2	1.3	100%
재학청년	36.8	46.2	14.3	2.0	0.7	100%
미취업 청년	14.9	46.0	37.9	1.1	0.0	100%

* 재직청소년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임.

청년들은 경제 글로벌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고 깊이 있는 인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59%의 조사대상자들은 "현행의 국제경제운영규칙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대부분은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관점을 인정했으며 절반이 넘는 (52.6%) 청년들은 "경제 글로벌화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의 빈부차이를 확대했다"는 관점을 인정했다. 경제 글로벌화는 기회와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에게는 위험도 적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기에 선진국의 경제와 기술 우세의 거대한 압력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라의 경제 주권과 경제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기에 자원과 환경의 오염을 대가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원쟁탈전에서 필연코 선진국의 첨단 기술의 독점적 위치는 더욱 공고해지고 개발도상국의 생태환경과 지속 발전의 모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표 II-3 참조).

표 II-3. 상해 청년들의 '경제 글로벌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인식(%)

	현행의 국제경제운영규칙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대부분은 선진국에 유리하다.	경제 글로벌화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간의 빈부차이를 확대했다.
매우그렇다	22.1	19.4
그렇다	36.9	33.2
잘 모르겠다	30.5	29.3
그렇지 않다	9.0	14.3
전혀그렇지않다	1.6	3.8
계	100%	100%

경제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는 점점 "지구촌"으로 변하여 서로간에 전화 한통 혹은 메일 하나로 쉽고 빠르게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가상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서로간의 교류는 우리에게 언어와 시각, 청각에서의 교류는 제공하지만, 본질적인 감성과 이성이 결합된 진정한 교류 체험을 잃게 하였다. 이러한 상실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문화를 추구하게 하여, 자기 민족의 전통 문화에 대한 지지와 보존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지지와 보존이 있기에 문화 다원화의 실현에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많은 문화가 남게 된 것이다. 엑스포는 전 세계 인류의 모임으로써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상해로 와 자신의 제품과 기예를 전시하고 자신의 고향과 나라를 자랑한다. 바로 이런 민족문화에 대한 인정과 자부심으로 인하여 엑스포라는 문화의 성대한 모임이 있게 된 것이다.

본 조사에서 81.2%의 청년들은 상해에서 엑스포를 진행하는 것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유입되고 상해지역문화의 다원화를 촉진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상해 청년들은 고향문화에 대한 인정도가 매우 높고 개방적인 국제의식이 있으며 엑스포를 통해서 고향문화를 풍부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고향문화에 대한 높은 인정도와 자부심이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외래문화가 고향문화를 대체하는데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게 한다. 자기 민족의 전통문화를 견지하고 보존하며 동시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은 문화의 다원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상해 청년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표 II-4 참조).

표 II-4. 상해 청년들의 '엑스포가 상해지역의 문화에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태도(%)

서로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유입되고 상해 지역문화의 다원화를 촉진한다.	서로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유입되고 상해 지역 전통문화에 위협을 준다.	상해지역의 문화에 영향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81.2	7.3	7.1	4.4	100%

3. 청년들의 인터넷 도덕과 법의식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처음으로 인터넷 엑스포를 개장하고 인터넷의 특수한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엑스포의 정보와 주제를 더 광범위하게 전파하였다. 이런 활동은 사람들이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의 공중도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본 조사에서 상해 청년들은 매우 높은 도덕 소양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에서 88.1%의 청년들은 비록 인터넷은 가상세계이지만 현시대 문명인으로서 마땅히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단속해야 하며 도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표 II-5 참조).

일반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그 사람의 도덕관념에 영향을 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표 3.6에서 볼 때 상해청년들은 인터넷 도덕에 관해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록 인터넷은 가상 세계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자율적으로 자신을 단속하여야 하며 도덕에 위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학력의 청년들보다 4-5% 높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은 가상 세계이기에 책임 질 필요가 없으며 도덕관념과 상관없다"는 관점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그룹의 평균보다 5%정도 높은 것과 고졸 및 이하 그룹을 볼 때 "잘 모르겠다."는 관점을 선택한 비율이 8.7%라는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청년들이 인터넷 도덕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있지만 일부 청년들은 아직도 인터넷 도덕에 대해 이해가 깊지 못하고 의식이 명확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표 II-6 참조).

표 II-5. 청년들의 '인터넷 도덕'에 대한 견해

인터넷은 가상 세계이기에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도덕관념과 상관없다.	비록 인터넷은 가상 세계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자율적으로 자신을 단속하여야 하며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6.3	88.1	5.6	100%

표 II-6. 교육수준별 상해 청년들의 '인터넷 도덕'에 대한 견해(%)

	인터넷은 가상 세계이기에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도덕관념과 상관없다.	비록 인터넷은 가상 세계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자율적으로 자신을 단속하여야 하며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인문계 고등학교 및 이하	5.8	85.4	8.7	100%
실업계 고등학교	13.5	82.4	4.1	100%
전문대학	8.0	87.6	4.4	100%
학부	4.5	89.7	5.7	100%
대학원	5.7	89.0	5.3	100%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종합적으로 청년들의 법제의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2010년 엑스포가 법치를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2.4%가 "그렇다"를 선택했고 20%가 "아니다"를 선택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엑스포가 법치를 추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법제의식의 제고를 촉진할 수 있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청년들은 "엑스포가 법치를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이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치를 보면 각각 64.2%, 71.2%, 81.0%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연한 수치가 아니라 지지비율의 세대 차이와 법제의식 세대차이가 부합되는 표현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법제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성숙된 법치사회에서는 다른 세대간에 법제의식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제가 점차 완성되고 있는 나라, 법치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제의식에 있어서 세대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표 II-7 참조).

표 II-7. 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2010엑스포가 법치를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 (%)

	전 체	90년대생	80년대생	70년대생
그렇다	72.4	81.0	71.2	64.2
아니다	7.7	4.4	8.5	8.3
잘 모르겠다	20	14.5	10.3	27.5
계	100%	100%	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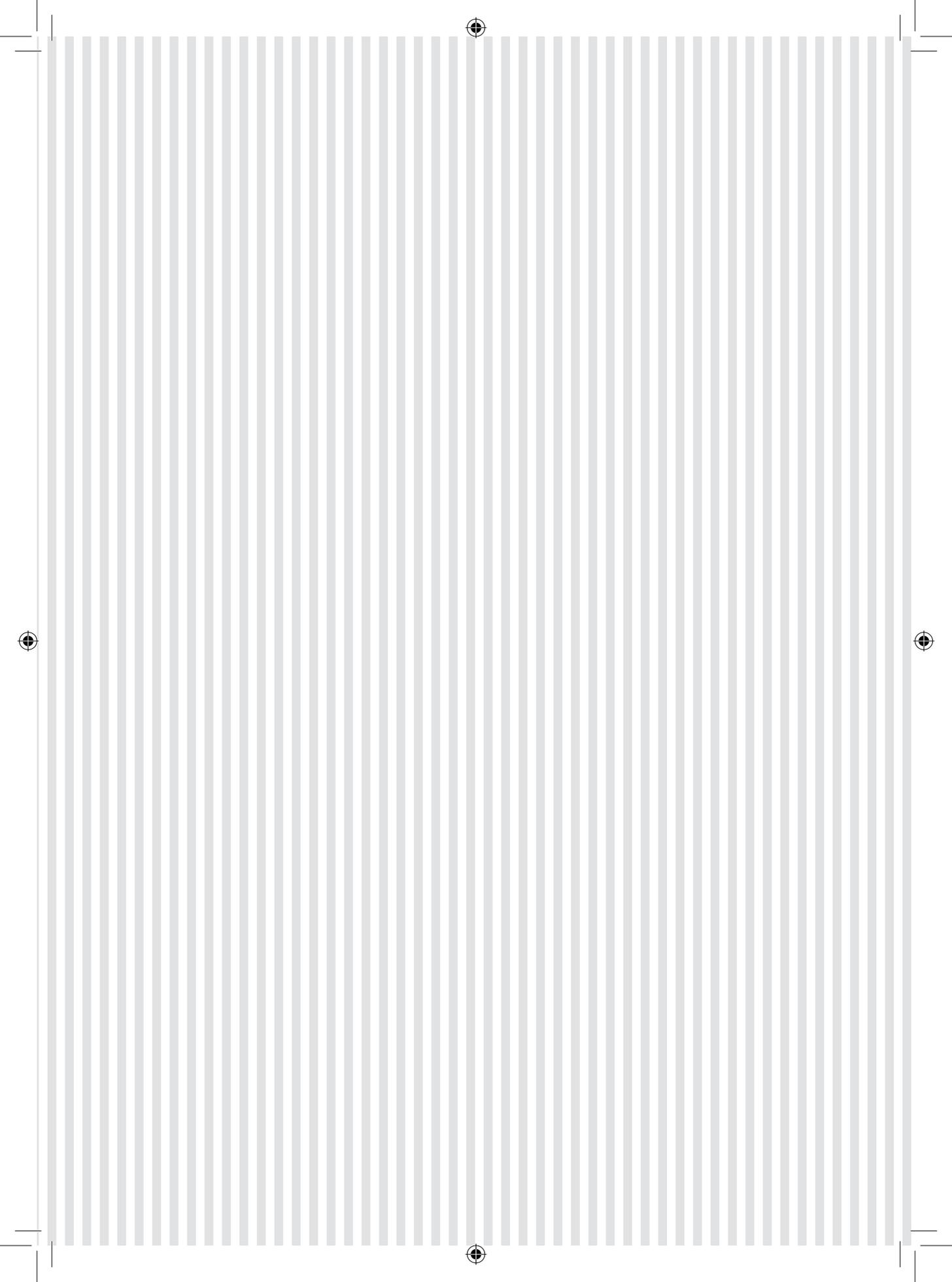
권리의식은 법제의식의 핵심이다. 모든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명하는 동시에 다른 주체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법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개성을 가진 세대로서 자신들만의 관념이 있다. 31.6%의 상해청년들이 "법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도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관점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권익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법제의식이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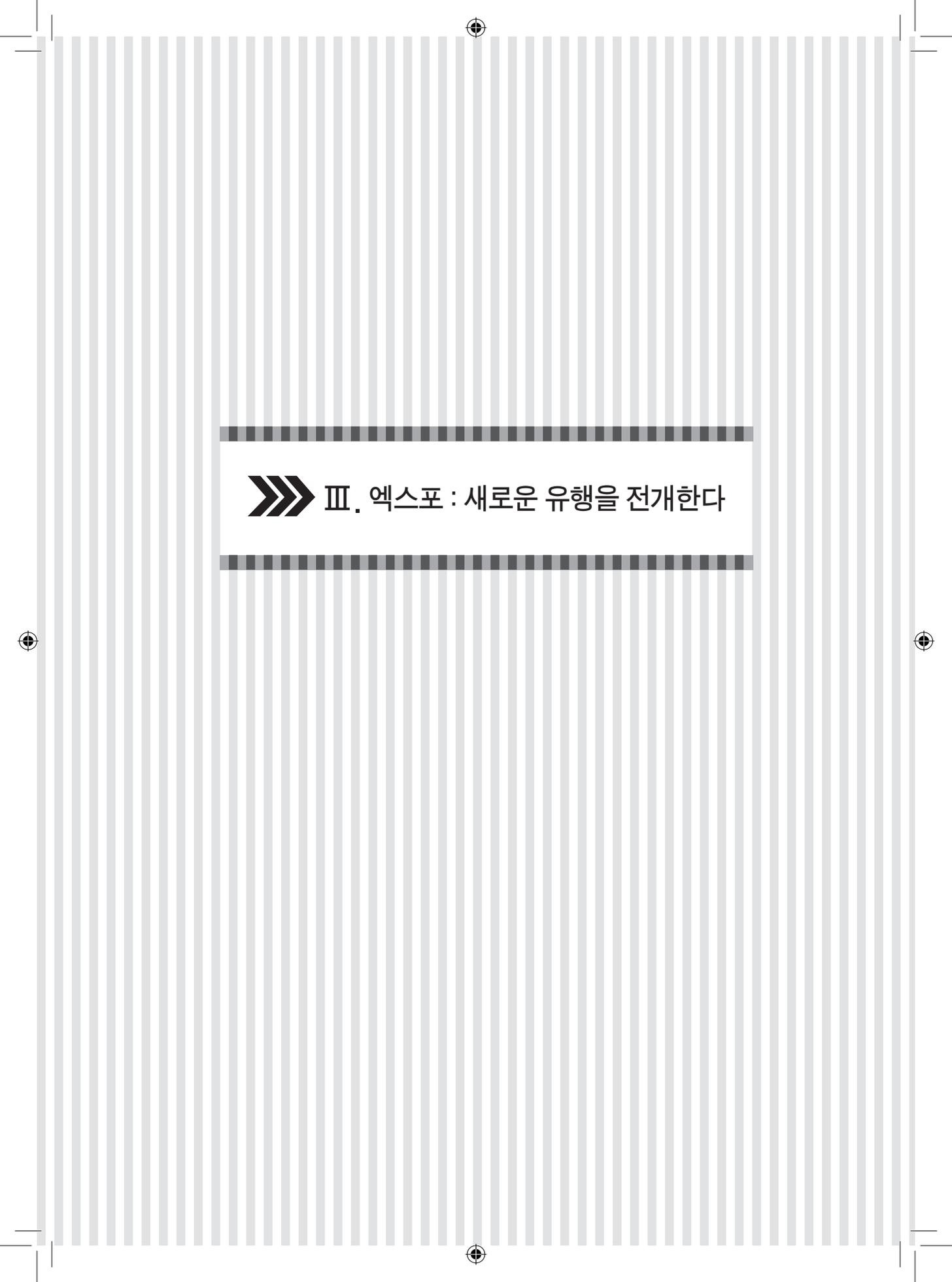
권리의식의 강약은 직업유형별로 구별된다. "법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도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관점에 대하여 선택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무직 청년(49.9%)으로서 재직청년(24.3%)과 재학청년(23.6%)보다 높다. 이는 무직청년들이 권익에 대해 더욱 많은 요구가 있으며 법제가 그들의 권익을 더욱 충분하게 보장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시인 법제 관념의 보편적인 강화는 도시 생활과 도시 발전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관점을 선택한 수치를 보면 무직청년들의 비율이 제일 낮은 27.1%로 재직청년(57.5%)과 재학청년(42.3%)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무직청년들이 타 집단에 비해 법제의식의 작용에 대한 평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문을 초래하게 된다. 위의 두 가지 응답을 종합해 볼 때 무직청년들은 권익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의 법제 의식이 일으킬 수 있는 실제작용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패러독스를 보이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표 II-8 참조).

표 II-8. 직업유형별 상해청년들의 "법제와 도시 생활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전 체	재직 청년*	재학 청년	무직 청년
법제건설의 추진은 도시건설과 발전의 전주곡이 될 수 있고 규범적으로 도시발전이 과학적이고 조화로운 길로 이끌 수 있다.	34.6	32.5	17.8	23.5
도시인의 법제 관념 강화는 도시생활과 도시발전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32.0	57.5	42.3	27.1
법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도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31.6	24.3	23.6	49.9
법제는 도시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8	0.9	1.0	0.0
계	100%	115.2%	84.7%	100.5%

* 재직청년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임.





▶▶▶ **Ⅲ. 엑스포 : 새로운 유행을 전개한다**

➔ 제1절 상해 청년들의 오락생활

1. 청년들의 생활추구

(1) 청년들의 생활행복감 지수

생활행복감 지수에 대한 조사에서 0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이고 10은 "매우 행복하다"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해청년들은 현재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7.18인데, "2008년 청년발전보고서"의 결과(7.17)와 거의 비슷하다. 2008년과 2009년 모두 남성청년들의 행복감 지수가 여성청년들보다 0.4정도 더 낮다(표Ⅲ-1 참조).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90년대 생의 행복감 지수가 제일 높은 7.5이고 80년대 생은 90년대 생보다 0.4점 낮으며 70년대 생은 80년대 생보다 0.07점 더 낮다. 청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취업압박과 여러 가지 경쟁압박 그리고 결혼과 연애, 가정생활압박 등의 요소들이 생활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은 주로 80년대 생과 70년대 생의 청년들한테서 더욱 자주 구현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표Ⅲ-2 참조).

표Ⅲ-1. 성별 상해 청년들의 생활행복감 지수

성별	표본크기	평균 (최소0~최대10)	분산
남	946	6,9778	1,932 67
여	922	7,3762	1,496 50

표Ⅲ-2. 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생활행복감 지수

연령별	표본크기	평균	분산도
70년대생		7,030 7	1,896 68
80년대생		7,107 3	1,759 52
90년대생		7,506 3	1,559 03

(2) 청년들의 생활행복감에 영향 주는 요소들

청년들의 생활 행복감에 영향 주는 요소들을 조사한 결과 "경제상황"이 50.0%, "건강상황"이 46.9%, "생활환경"이 32.6%로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여겨졌는데,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큰 변화는 "생활환경"이 "사업상황"을 대체해 상해 청년들의 행복감에 영향 주는 3대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엑스포가 상해에서 열림에 따라 "도시는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주제와 함께 도시가 더욱 살아가기 적합하게 기획되고 도시의 기능이 더욱 많아지며 도시 생태환경 건설 등 과학적 이념이 점차적으로 여러 매스 미디어와 대중들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도시의 생태환경과 도시인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점차 정부에서 민생을 주시하고 시민들의 행복감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개인 생활환경의 개선과 생활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것은 상해도시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초점이 되고 있기에 행복감에 영향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심층 분석을 하면, 남성청년들과 여성청년들은 행복감에 영향 주는 주된 요소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남성청년들에게 중요한 요소들은 "경제상황", "건강상황", "생활환경"이지만 여성청년들은 "건강상황", "경제상황", "대인관계"가 행복감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남녀차이가 있는 원인은 남성 청년들이 사회역할의 분담에서 더욱 많은 사회적 책임과 경제 압박 등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표Ⅲ-3).

표Ⅲ-3. 성별/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행복감에 영향 주는 요소'

성 별	영향요소	백분율(%)
남	(1위) 경제상황	54.3
	(2위) 건강상황	46.2
	(3위) 생활환경	33.8
여	(1위) 건강상황	48.8
	(2위) 경제상황	47.2
	(3위) 대인관계	32.5

본 조사결과를 보면 상해 청년들은 "엑스포가 시민의 행복감을 상승시킨다"는 관점에 대한 인식이 81.9%이고 "매우 인정한다"는 비율이 34.3%로 나타났다.

"엑스포가 시민의 행복감을 상승시킨다" 는 관점에 대해 90년대 생 청년들의 태도가 제일 적극적으로 90.7% 이지만 80년대와 70년대 청년들은 각각 80.3%와 75.8% 이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의 관점에 "매우 인정한다" 를 선택한 비율을 보면 90년대, 80년대, 70년대 순서로 42.5%, 33.0%, 27.4%와 같이 점차 적어졌다. 이는 90년대 청년들이 "엑스포가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한다" 는 관점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Ⅲ-4 참조).

표Ⅲ-4. 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엑스포가 시민의 행복감을 상승시킨다." 에 대한 인식

연령별	매우 인정한다	비교적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계
전 체	34.3	47.6	12.0	2.4	3.7	100%
70년대생	27.4	48.4	14.6	2.7	6.8	100%
80년대생	33.0	47.3	13.3	2.5	4.0	100%
90년대생	42.5	48.2	6.2	1.8	1.3	100%

(3) 엑스포와 청년들의 삶의 질

상해청년들은 엑스포가 상해의 도시면모와 상해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엑스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시민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도시 공중시설이 더욱 개선되고 지역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된다", "교통운송업의 발전이 빨라지고 일상 통행이 더욱 편리하게 된다" "환경보호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도시의 하늘이 더욱 맑아지며 수질이 좋아진다" 는 관점에 대해 각각 70.0%, 67.2%, 48.3%가 인정하였다(표Ⅲ-5 참조).

표Ⅲ-5. 상해 청년들의 "엑스포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대한 기대

엑스포가 상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	백분율(%)
도시 공중시설이 더욱 개선되고 지역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된다.	70.0
교통운송업의 발전이 빨라지고 일상 통행이 더욱 편리하게 된다.	67.2
환경보호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도시의 하늘이 더욱 맑아지며 수질이 좋아진다.	48.3
도시 환경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도시의 모습이 말끔하게 된다.	47.3
여가산업시설이 더욱 풍부해지고 도시의 여가생활도 더욱 다채로워 진다.	34.8

2. 청년들의 유행과 휴식

(1) 상해 엑스포와 청년들의 휴식장소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중국경제 발전과 사회생활방식의 거대한 변화에 따라 편안하게 쉬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며 지식을 늘리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휴양이 점차적으로 대중사회, 특히 청년들의 보편적인 수요가 되었다. 현대의 휴양 방식은 침투되고 융합되며 감화되고 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위와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며 현대인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요소가 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66.3%의 상해청년들은 "상해 엑스포가 상해의 여행업을 향상시켜 상해가 최고의 휴양지가 되게 한다"는 관점을 인정했고 "상해 엑스포는 상해 여행업이 일약 향상되는 거대한 기회"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94.4%)가 인정했다(표Ⅲ-6 참조).

"상해 엑스포는 상해 여행업이 일약 상승하는 거대한 기회"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만 "상해 엑스포가 상해의 여행업을 향상시켜 상해가 최고의 휴양지로 되게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미취업청년들의 심리 상태가 재학, 재직 청년들과 선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직 청년과 재학 청년의 위의 관점에 대한 찬성 비율은 67.9%와 67.6% 이지만 미취업청년은 25% 이고, 71.9%의 미취업 청년들은 이 관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현상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압박,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리상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관부서에서는 직업유형별로 실제 어려움과 현실 수요에 따라 일정한 정책이나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유용한 조치를 취하여 엑스포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엑스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시 해야한다(표Ⅲ-7 참조).

표Ⅲ-6. 직업유형별 상해 청년들의 "상해 엑스포는 상해 여행업이 일약 향상되는 거대한 기회" 라는 인식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전 체	49.6	44.7	4.2	0.5	0.8	100%
재직청년*	47.5	46.1	4.3	0.5	1.6	100%
재학청년	53.7	41.5	4.2	0.5	0.1	100%
미취업청년	25.0	75.0	0.0	0.0	0.0	100%

* 재직청년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임

표Ⅲ-7. 직업유형별 상해 청년들의 "상해 엑스포가 상해의 여행업을 향상시켜 상해가 최고의 휴양지가 되게 한다" 는 인식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전 체	22.5	43.8	26.1	2.7	4.9	100%
재직청년*	20.7	47.2	22.3	2.8	7.0	100%
재학청년	24.9	42.7	27.0	2.4	2.9	100%
미취업청년	12.5	12.5	67.2	4.7	3.1	100%

* 재직청년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임

(2) 상해 엑스포와 청년들의 오락

6개월간 진행되는 엑스포 행사에서 청년들이 엑스포의 어떤 오락과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관심 갖는 문제이다. 본 조사에서 보면 청년들이 제일 관심을 보이는 3가지 항목은 "전시회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형태가 다른 건축물"(69.3%), "단지의 주제 경관 건축물"(61.5%), "전람관 내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전시품"(57.9%) 이고 절반 정도의 청년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특색 있는 여러 가지 공연과 주제 활동"(50.1%)을 선택했지만 "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품질"(18.2%), "열렬한 현장 분위기와 넘쳐나는 관람객"(18.2%)을 선택한 비율은 낮았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형태가 다른 건축물"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엑스포가 글로벌화와 다원 문화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써 여러 나라 문화와 특수함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상해 청년들을 제일 매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엑스포가

국외에 나가 직접 이국의 문화매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수요와 부합되며 상해 청년들이 시야를 넓히는 등 청년들의 문화 차원을 높이는 데 매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Ⅲ-8).

성별,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총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90년대 생 청년들을 제일 매료시키는 항목은 "전람관 내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전시품"(62.5%) 라는 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표Ⅲ-8. 성별/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상해 엑스포가 청년들을 제일 매료시키는 항목' 인식 (%)

	백분율(%)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전시회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형태가 다른 건축물	69.3	62.7	76.2	65.4	72.4	61.4
단지의 주제 경관 건축물	61.5	61.8	60.9	59.9	62.1	58.8
전시관 내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전시품	57.9	56.5	59.4	56.7	57.3	62.5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특색 있는 여러 가지 공연과 주제 활동	50.1	48.7	51.7	51.6	48.8	55.1
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품질	18.2	22.0	14.5	22.6	18.0	16.3
열렬한 현장 분위기와 넘쳐나는 관람객	18.2	21.2	14.8	10.1	18.0	22.0

제2절. 상해 청년들의 국제교류

1. 청년들의 유학과 직업선택

(1) 청년들의 유학과 직업선택에 대한 태도와 인식

최근 몇 해 동안 개방의 심화에 따라 상해 청년들의 공부 및 취업의 선택추세는 강하게 외향형, 국제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해청년들은 "해외유학"과 "외자기업에 취직"을 인정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해외 이민"에 대한 인정 비율은 비교적 낮다. 이것은 상해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개척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건국 60년, 개혁개방 30년 동안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강대해지는 중국의 경제력과 국력으로 인해 청년들이 국제교류에서 더욱 강한 민족적 자신감과 자부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는 상해의 발전기회가 외국보다 적지 않다고 느끼기에 "해외이민"은 10여년 전과 같이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 것이다(표Ⅲ-9 참조).

남녀별, 연령별로 청년들의 유학과 취업에 대한 인정 정도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 준다. 남성의 해외지향이 여성보다 조금 높다. 70년대생은 외동자녀인 비율이 낮고 대부분 이미 취업했으며 근무상황과 생활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기에 "해외유학", "해외이민", "외자기업에 취직"등에 대한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80, 90년대생은 대부분 외동자녀이고 해외유학과 취업, 이민에 대한 지향성과 적극성이 비교적 높다(표Ⅲ-10 참조).

표Ⅲ-9. 상해 청년들의 '유학과 취업' 선호도

	표본크기(명)	평균 (최소1-최대5)	분산
해외유학	1933	3.59	1.150
해외이민	1934	2.97	1.215
외자기업에 취직	1928	3.58	1.132

표Ⅲ-10. 성별/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유학과 취업' 선호도

		해외유학	해외이민	외자기업에 취직
성별	남	3.62	3.28	3.94
	여	3.57	2.95	3.62
연령별	70년대생	3.49	2.94	3.33
	80년대생	3.56	2.99	3.52
	90년대생	3.75	3.14	3.88
외동자녀여부	외동자녀이다	3.61	3.00	3.60
	외동자녀가 아니다	3.53	2.90	3.51

(2) 청년들의 유학과 직업선택의 주요 동기와 선호도

"조건이 허락되어 유학을 선택했을 때 유학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졸업한 후 외국에서 취직하거나 이민을 가기 위해서"가 비율이 제일 낮게 나왔는데, 외국에서의 취직 또는 이민이 이미 상해 청년들에게는 운명을 전환하고 생활상황을 개선하는 최적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해 청년들이 유학을 선택하는 것은 국외의 선진적인 기술이나 문화 등을 국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선이며 건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으며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상이한 청년들이 유학을 원하는 주요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학의 원인으로 남녀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것은 "자신의 시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위이지만 여성청년들의 비율은 69.6%로서 남성 청년들의 59.5% 보다 10%정도 높다. 이 결과는 2008년 조사결과와 비슷한데 이는 상해 여성 청년들이 적극적인 개방성과 단호한 심리 상태, 외부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는 용기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에 대한 선택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10%정도 높지만 "국외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에 대한 선택은 남성이 여성보다 5%정도 높다. 연령별로 보면, 절반정도(49.3%)의 90년대생 청년들은 해외유학을 선호하는 이유로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는데 80년대생

(30.9%), 70년대생(15.8%)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이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90년대생 청소년들이 사회와 가정, 부모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단련하려고 하는 의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재학청년과 재직청년의 비교에서도 보다시피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를 선택한 비율이 재학청년(44.2%)이 재직청년(19.7%)보다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III-11 참조).

표III-11. 성별/연령별/직업형태별 상해 청년들의 '해외유학 희망사유' (%)

	백분율 (%) 전체	성별		연령별			직업형태	
		남	여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재직청년	재학청년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64.7	59.5	69.6	61.4	61.0	70.4	58.2	67.5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58.9	53.5	64.2	60.5	63.0	61.8	61.2	66.7
국외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53.6	57.4	49.9	48.2	54.9	57.7	52.4	51.9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38.0	34.5	41.4	15.8	30.9	49.3	19.7	44.2
졸업한 후 국외에서 취직하거나 이민을 가기 위해서	20.2	22.6	17.9	12.3	17.5	9.9	18.0	13.9

(3) 청년들의 유학 국가에 대한 선택

"경제압박과 언어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유학할 수 있다면 선택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선택은 미국이 34.4%로 1위이고 영국이 15.0%, 호주가 10.9%로 각각 2, 3위를 점했다. 2008년 조사결과는 1, 2, 3위가 미국, 캐나다, 호주였다. 동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일본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현상은 연령에 따라 청년들이 일본유학문제에서 뚜렷한 불일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90년대생 청년들은 14.3%가 일본을 가장 선호하는 유학국가로 선택했지만 80년대와 70년대생은 각각 4.8%와 1.7%이었다. 이런 10% 이상의 차이는 이번 조사에서 매우 드문 것이다.

이는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점점 빈번해지고 일본의 만화, 드라마, 유행가와 상품 등이 많이 몰려들면서 상해 청년들에게 점차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생 청년들은 의식의 독립성과 다원

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외래문화의 영향과 침투를 더 많이 받는다. 그 외에 최근의 중일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2007년 중국총리의 일본 방문과 2009년 중국 총서기의 일본 방문이 있는 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일사이의 정치와 외교관계는 경제와 문화의 진일보한 교류·합작을 가져왔다. 이러한 원인이 상해청년들의 일본유학 열정을 높인 것이라고 해석된다(표Ⅲ-12 참조).

표Ⅲ-12. 성별/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해외유학 선호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성별	남	37.5	14.4	9.1	9.4	5.2	1.7	7.0	6.6	4.9
	여	30.8	15.4	9.2	12.6	6.4	2.1	5.0	4.7	10.7
연령별	70년대생	38.3	16.5	10.4	9.6	2.6	3.0	1.7	5.2	8.7
	80년대생	35.4	16.0	8.4	11.5	4.5	3.4	4.8	5.3	9.3
	90년대	31.4	14.3	5.7	5.7	4.3	4.3	14.3	5.7	8.6

2. 청년들의 국제교류와 국제결혼

광범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는 청년들이 사회환경에 더욱 쉽게 적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과 국제결혼은 청년들의 국제적 인간관계의 성숙정도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에 대해 인정하는 정도가 3.93으로서 국제결혼의 2.74보다 매우 높다. 이는 한편으로는 상해청년들이 외국인과의 인간관계와 교류에서 비교적 개방되고 적극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인종, 문화, 지역, 생활습관, 종교 등 여러 가지 원인과 이로 인한 교류장애, 높은 이혼율 등으로 여전히 신중함과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Ⅲ-13 참조).

표Ⅲ-13. 상해청년들의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 와 "외국인과 결혼한다" 에 대한 태도

	표본크기 (명)	평균 (최소 1~최대5)	분산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	1,942	3.93	1,196
외국인과 결혼한다.	1,920	2.74	1,149

청년들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면에서 보편적인 적극성이 있지만 집단별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볼 때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연령별로 볼 때 90년대생 청년들(78.1%)이 제일 개방적인 편으로 55.2%가 "매우 찬성한다"를 선택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국인 친구의 선택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80년대생 40.4%, 70년대생 30.8%). 이는 청년들이 성장하고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심리상태가 점차 성숙되고 성격이 더욱 듬직해지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직업형태별로 보면 재학청년들의 51.1%가 "매우 찬성한다"를 선택했고 재직청년은 35.2%, 미취업 청년은 18.5%가 외국인 친구에 대한 개방성을 보였다(표Ⅲ-14 참조).

국제결혼에 관해서도 유형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남성청년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정 비율이 여성청년들보다 높다. 연령별로 볼 때 집단간 차이는 더욱 선명한데, 70년대생 청년들은 기혼자가 대부분이기에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자연히 소극적인데 비해, 80년대, 90년대생 청년들은 비교적 개방적이었는데 80년대생은 "찬성한다"와 "찬성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1:2 에 가까우며 90년대생 청년들은 "찬성한다"와 "찬성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1: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상해 청년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개방적인 심리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표Ⅲ-15 참조).

표Ⅲ-14. 성별/연령별/직업형태별 상해 청년들의 '외국인 친구를 사귀다'에 대한 태도(%)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	관심없다.	찬성 한다.	매우 찬성한다.	계
성별	남	6.8	6.0	20.3	26.5	40.3	100%
	여	7.1	4.7	15.5	28.8	44.0	100%
연령별	70년대생	4.5	4.5	29.9	30.3	30.8	100%
	80년대생	7.7	5.3	18.0	28.5	40.4	100%
	90년대	5.7	5.5	10.7	22.9	55.2	100%
직업 형태	재직청년	6.9	4.8	22.8	30.2	35.2	100%
	재학청년	7.4	4.7	11.3	25.5	51.1	90%
	미취업 청년	1.5	16.9	46.2	16.9	18.5	100%

표Ⅲ-15. 성별/연령별 상해 청년들의 “외국인과 결혼한다” 에 대한 태도(%)

		전혀 찬성 하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	관심없다.	찬성 한다.	매우 찬성한다.	계
성별	남	16,2	20,2	38,9	12,7	11,9	100%
	여	16,6	27,0	37,3	12,9	6,2	100%
연령별	70년대생	23,4	27,3	34,9	9,1	5,3	100%
	80년대생	16,9	24,8	37,0	12,5	8,7	100%
	90년대	10,9	17,4	43,2	15,9	12,5	100%

▶ 제3절. 상해 청년들의 환경보호와 생활

1. 청년들과 환경보호

(1) 청년들의 환경보호 의식

"지속적인 발전", "생태문명", "환경사회의 건설"은 중국공산당 17차 대회에서 제출한 환경보호에 관한 중대한 전략적 목표이다. 엑스포가 상해에서 열리게 되는 배경 하에서 상해 청년들의 환경보호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 청년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84.2%의 청년들은 "환경보호는 매우 긴박한 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인정했고 이와는 반대입장인 "생활수준을 일정한 정도까지 상승시킨 후 다시 환경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또는 "우리의 환경은 아직 고심해서 보호해야 할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 "확실히 긴박한 일이지만 그건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등에 대한 인정은 각각 12.7%, 1.7%, 1.3%에 불과했다. 여기서 환경보호가 긴박한 일이라는 관점에 대한 인정비율이 높기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무의식중에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환경보호 측면에서 청년들의 참여 및 주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해청년들의 환경보호의식은 전체적으로 높지만 교육수준별로 여전히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호의식도 높는데 전문계 고교와 그 이하 학력의 적지 않은 청년들은 긴박한 환경보호의식이 없거나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유형 청년들의 환경보호의식을 어떻게 더욱 높일 것인가는 관련 부서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이다(표Ⅲ-16 참조).

청년들이 속한 정치단체별로 환경보호의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예상과 일치했다. 공산당원이 "환경보호는 매우 긴박한 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인정비율이 제일 높는데 공청단원, 민주당파와 보통청년들보다 각각 6%, 15%,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당원의 신분이 이 유형의 청년

들에게 더욱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였기에 환경보호에 대해 더 많은 인정과 더 큰 열정을 가지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Ⅲ-17 참조).

표Ⅲ-16. 교육수준별 상해 청년들의 "환경보호의식" (%)

교육수준	환경보호는 매우 긴박한 일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야 한다	생활수준을 일정한 정도 까지 상승시킨 후 다시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의 환경은 아직 고심해서 보호해야 할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	확실히 매우 긴박한 일이지만 그건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계
초등학교 이하	75.0	12.5	10.5	2.0	100%
중학교	69.2	25.4	3.8	1.5	100%
전문계 고교*	78.1	17.1	2.05	2.1	100%
인문계 고교	79.8	18.3	1.18	0.6	100%
전문대학	79.1	16.9	2.95	1.0	100%
학부(4년제)	88.5	9.65	1.97	0.5	100%
대학원생	89.8	9.17	0.91	0.1	100%

* 중국에서 전문계 고교에 속하는 학교유형은 직업 전문학교, 중등전문학교, 직공학교 등

표Ⅲ-17. 소속 정치단체별 상해 청년들의 '환경보호의식' (%)

소속 정치단체별	환경보호는 매우 긴박한 일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	생활수준을 일정한 정도 까지 상승시킨 후 다시 환경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은 아직 고심해서 보호해야 할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	확실히 매우 긴박한 일이지만 그건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계
공산당원	89.3	8.8	0.8	0.8	100%
공청단원	83.5	13.3	2.0	1.2	100%
민주당파	74.7	25.3	0.0	0.0	100%
어느 것도 아니다.	68.5	22.0	5.8	3.2	100%

(2) 청년들의 엑스포와 도시환경보호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반적으로 상해 청년들에게는 엑스포가 상해의 생태환경보호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는데, "자원의 순환 사용"(29.0%), "새로운 에너지의 이용"(26.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오염을 방지"(22.9%), "생태녹화"(21.2%) 등의 기대가 있다. 이는 최근에 상해에서 실시한 청년들에 대한 환경교육사업과 관계된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두 환경보호 교육을 전개했고 연관된 교재와 교육과정을 수립하였으며 사회활동과 공공 참여 방안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전개했다. 전 사회에서 생태문명에 대한 추구는 정신문명건설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고 환경교육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표III-18 참조).

표III-18. 상해 청년들의 '엑스포가 상해의 생태환경보호를 촉진'에 대한 기대

항목	백분율(%)
자원의 순환 사용	29.0
새로운 에너지의 이용	26.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오염을 방지한다.	22.9
생태녹화	21.2
기타	0.7
계	100%



2. 청년들과 녹색 상해 엑스포

지난 1년간 청년들이 "녹색 엑스포"에 참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새로운 정신상태, 충분한 열정과 자신의 실제행동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활동에 참여했다. "엑스포에 공헌하고 엑스포를 함께 누리자."는 구호는 이미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조사에서 나타난 제일 큰 특징은 "환경보호-할 수 있는 작은 일부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80% 정도의 청년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젓가락을 구매하지 않았고 60% 정도의 청년들이 친환경 생산품, 에너지 절약형 전구와 냉장고 등을 구매했고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일수다용"⁶⁾의 습관을 키웠으며 그 중에서 27.2%와 23.7%의 청년들은 주체적으로 상해의 여러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했다. "녹색 엑스포"의 이념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게 파고들어감에 따라, 특히 청년들의 마음 속에 뿌리 내려가고 있다.

연령별로 청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 90년대 생 청년들이 "상해의 환경보호 활동, 예를 들면 큰길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활동에 참여한다", "친환경 조직에 자원자로 봉사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돈을 기부한다", "유랑하는 고양이 혹은 개를 수양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등의 방면에서 주체적인 능동성이 80년대생이나 70년대생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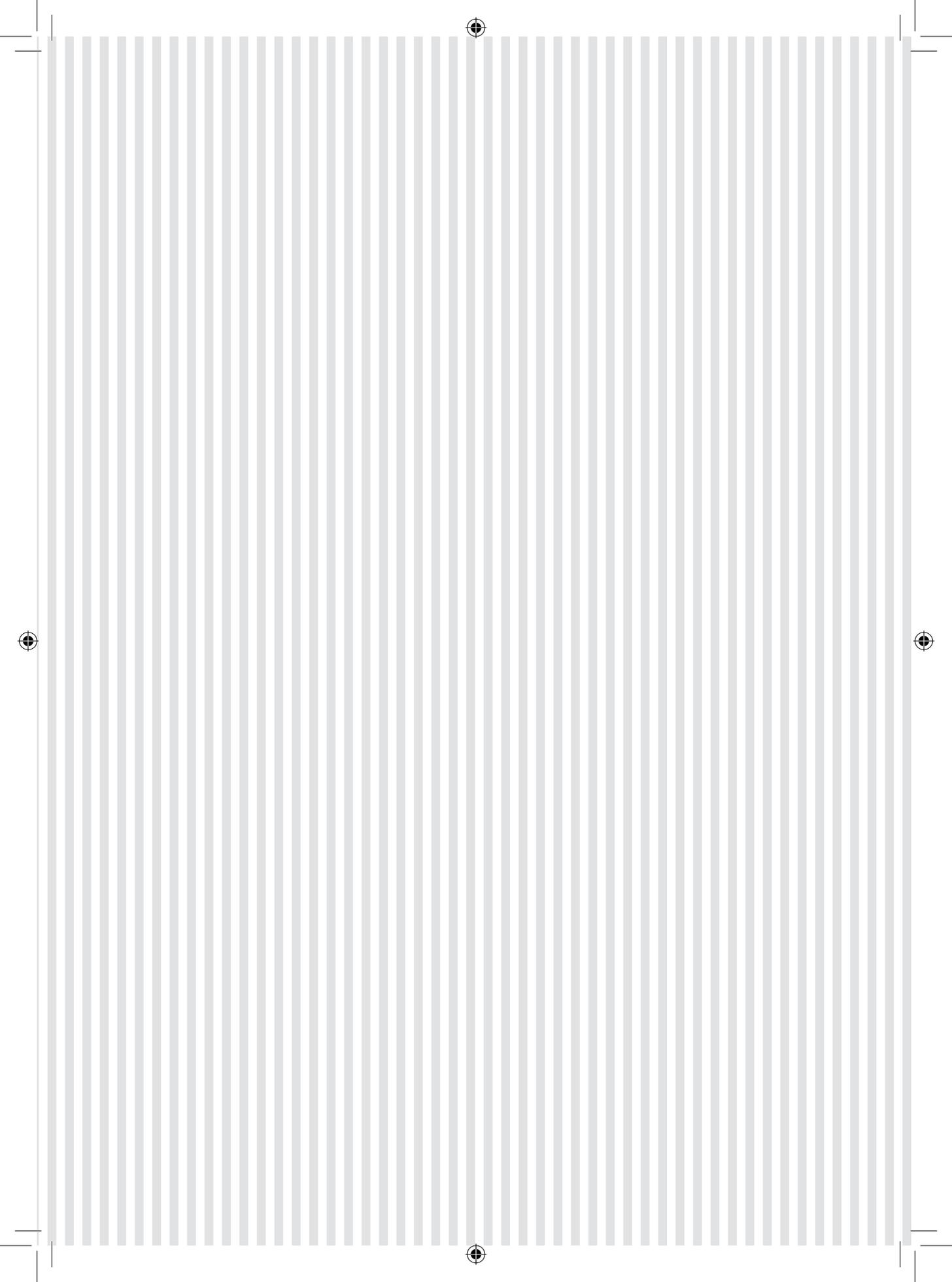
소속정치단체별로 보면, 많은 청년당원들이 "상해의 환경보호 활동, 예를 들면 큰길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활동에 참여한다", "친환경 조직에 자원자로 봉사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돈을 기부한다" 등의 방면에서 모범적인 참여활동을 보였다(표Ⅲ-19 참조).

6) 역자 주)중국에서는 물부족으로 인해 한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말고 여러 방식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계도를 하고 있음.



표III-19. 연령별/소속정치단체별 상해청년들의 “지난 1년간 녹색 엑스포” 참여 상황 (%)

	전 체	연령별			소속정치단체별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공산당원	공청단원	민주당파	어느것도 아니다
비감성 비닐봉투와 일회용 젓가락을 구매하지 않는다.	77.7	86.4	77.1	75.8	79.1	77.8	44.4	75.9
친환경 생상품, 에너지 절약형의 전구와 냉장고 등을 구매한다.	63.0	61.5	63.0	65.1	18.7	25.4	61.1	22.4
일수다용, 예를 들면 빨래한 물로 걸레질 하고 번기청소 하는 등	52.1	54.3	51.6	52.9	25.1	28.1	50.0	25.0
상해의 환경보호 활동, 예를 들면 큰길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활동에 참여한다.	27.2	25.1	27.2	28.3	68.3	62.3	61.1	55.3
친환경 조직에 자원자로 봉사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돈을 기부한다.	23.7	15.8	23.7	28.1	53.6	51.9	38.9	51.3
유량하는 고양이 혹은 개를 수양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9.1	4.1	9.8	13.6	7.2	9.7	16.7	9.6





IV. 엑스포 : 새로운 생활을 구축한다

➔ 제1절. 상해 청년들과 조화로운 가정 창립

1. 청년들의 가정 구성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청년들의 가정 구조와 특징

가정구조는 가정 성원들의 구성상황 혹은 가정을 구성하는 성원의 유형을 말한다. 가정구조는 가정 성원들의 지위, 관계와 노인을 봉양하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 가정 관념의 형성 등에 깊은 영향을 주며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전제와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가정구조는 4가지 유형-핵심가정, 독거, 연합가정, 직계가정 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유형 외에 연구 대상자인 청년들의 생애주기 특징에 따라 "부부가정"을 추가하였다. 부부가정은 핵심가정의 한 유형으로 부부 두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인데, 조사대상자들이 실제로 부부가정일 경우 "핵심가정"을 선택하지 않게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핵심가정은 제일 흔히 보이는 가정구조로 45.2%를 차지하고 부부가정은 20.4%로 2위에 있으며 직계가정이 17.4%로 3위, 독거가정이 9.0%이고 연합가정은 비교적 적은 5.4%이었다. 현재 시대에 상해 청년들에게는 핵심가정, 부부가정, 직계가정이 제일 기본적인 가족유형인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큰 가정과 작은 가정으로 동시에 변화하는 최근 중국가정구조의 총체적인 발전 추세와 비슷했다(표IV-1 참조).

표IV-1. 조사대상 상해청년들의 가정구조 분포

	빈도수	유효 백분율(%)
핵심가정1)	859	45.2
독거2)	172	9.0
부부가정3)	388	20.4
연합가정4)	103	5.4
직계가정5)	330	17.4
기타	50	2.6
전 체	1902	100.0

- 1) 핵심가정 : 부모와 자녀의 2세대가 거주하는 가정
- 2) 독거 : 청년만 홀로 거주하는 가정
- 3) 부부가정 : 자녀가 없이 부부만 거주하는 1세대가정
- 4) 연합가정 : 직계가족 외에 친척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
- 5) 직계가정 :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세대이상이 거주하는 가정

(2) 도시화가 청년들의 가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외동자녀 여부, 혼인 상황, 월수입, 호적 등과 청년들의 가정구조를 상호 분석해 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다른 5가지는 모두 가정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연령과 외동자녀 정책이 도시 가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가 있기에 여기서는 나머지 3가지 요인—혼인상황, 월수입, 호적 등—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혼인 상황, 특히 출산상황이 청년들의 가정구조에 주는 영향을 보면, 청년들은 결혼 전에는 대부분 부모와 같이, 일부는 (외)조부모와 같이 생활하지만 결혼 후에는 젊은 부부들이 부모와 분가해서 생활하는 현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 후 부부가정을 선택했으면 그 후에는 핵심가정으로 되어야 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면 직계가정 혹은 연합가정이 되어야 하지만, 청년들이 출산한 후 다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비율은 오히려 4%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기혼, 출산했다"의 청년들을 보면 부부가정을 선택한 비율(4.8%)이 핵심가정을 선택한 비율(2.6%)보다 2.2%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꼼꼼이 새겨볼 만한 것이다. 많은 청년들은 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보육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자식에 대해

서는 낳아서 부모에게 양육을 맡기거나 부모와 함께 살며 키우는 현상이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해 청년들은 결혼 후 원래의 가정과 "분가(分家)"는 했지만 "분업(分業)"은 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표IV-2 참조).

표IV-2. 조사대상 상해청년들의 가정구조별 혼인 상황

교육수준	미혼, 독신	미혼, 연인이 있다.	기혼, 출산 하지 않았다.	기혼, 출산 했다.	결혼 했었다.	전 체
핵심가정	30,7	10,7	1,1	2,6	0,1	45,2
독 거	5,3	3,1	0,1	0,5	0,1	9,1
부부가정	6,3	2,5	6,8	4,6	0,1	20,3
연합가정	2,5	1,0	0,6	1,3	0,0	5,4
직계가정	11,7	3,4	0,8	1,2	0,1	17,3
기타	1,5	0,7	0,3	0,2	0,0	2,6
전 체	58,0	21,6	9,7	10,4	0,3	100,0

N=1892, P=0,000

월수입은 청년들의 가정구조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나의 변수이다. 수입별로 보면,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핵심가정이 주요한 가정유형이지만, 수입이 낮을수록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비율이 더 높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도시화의 진전이 빨라진 후 노동의 분업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노동력 시장의 유동성도 더 커졌다. 직업시장에서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더 인기가 있기에 청년들은 부모를 일찍 떠나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고 부모와 같이 생활한다 해도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입이 높아질수록 이런 독립성도 강해지게 된 것이다(표IV-3 참조).

표IV-3. 조사대상 상해청년들의 가정구조별 상해 청년들의 가정 월수입 상황

교육수준	2000원 이하	2001-3000원	3001-4000원	4001-5000원	5001-10000원	만원 이상	전 체
핵심가정	14,80	7,50	5,10	6,00	8,00	3,70	45,20
독 거	2,80	2,20	1,50	1,50	0,80	0,40	9,20
부부가정	4,30	2,70	2,70	2,70	5,00	2,90	20,40
연합가정	1,80	1,30	0,30	0,80	0,90	0,40	5,40

직계가정	6,00	3,00	2,10	2,20	2,60	1,30	17,20
기타	1,30	0,50	0,10	0,30	0,40	0,10	2,60
전 체	31	17,2	11,8	13,5	17,7	8,8	100

N=1892, P=0,000

상해 청년들의 호적상황이 가정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가정구조에 관계없이 핵심가정이 절대 우세이지만, 도시 청년들의 핵심가정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해호구 소유여부가 청년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다. 상해호구가 없는 청년들의 독거 비율이 상해호구가 있는 청년들 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해에 온 청년들이 상해호구를 취득하기 전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호적이 청년들의 가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고 다른 하나는 상해호구와 비 상해호구의 구별인데 이는 현시대 중국의 도시와 농촌사이 불균형의 특징을 반영하고 도시 생활의 현대적 특징을 반영한다(표IV-4 참조).

표IV-4. 조사대상 상해청년들의 가정구조별 호적 상황

교육수준	상해호구 ¹⁾	상해거류증 ²⁾	다른 성, 도시와 읍의 호구	다른 성의 농촌호구	전 체
핵심가정	34,9	2,5	5,6	2,3	45,3
독 거	4,9	1,2	1,5	1,5	9,1
부부가정	14,9	1,4	2,3	1,6	20,2
연합가정	3,7	0,3	1,0	0,4	5,4
직계가정	12,7	1,0	1,6	2,2	17,5
기타	1,7	0,3	0,3	0,3	2,6
전 체	72,8	6,7	12,3	8,3	100,1

N=1888, P=0,000

1)호구는 호적과는 별도로 특정 성/시에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제도임

2)자신의 호구가 아닌 사람이 상해시에 거주할 경우는 상해거류증을 받아야 함



2. 청년들의 조화로운 가정에 대한 인식과 실천

(1) 대부분의 청년들은 원 가족과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이가 떨어져도 분리하지는 않는" 관계를 원한다

자신과 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8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1은 "매우 그렇다", 2는 "그렇다", 3은 "그렇지 않다", 4는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모르겠다." 로 하고 평균치를 측정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흥미로운 가족관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현대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해도 성인이 된 후 "부모와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쓰는"데 대해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와 같이 살아도 경제적으로는 독립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결혼 후에 제일 이상적이라 생각되는 거주 방식은 "부모는 신혼부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방식에 대해 32%의 청년들은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으며 52.6%의 청년들은 "그렇다"를 선택했다. 84.6%의 청년들이 결혼 후 원 가족과 경제적으로는 독립하고 거주 공간에서는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표IV-5 참조).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정패턴, 심지어 개혁초기의 가정패턴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비교적 길었는데 미혼 성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일정한 시간을 함께 지냈다. 세대 간에 경제뿐만 아니라 감정이든 공간이든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현대 상해청년들이 원하는 가정패턴을 보면 서구의 현대적 가정패턴과 비슷하게 된 것이다.

현시대의 세대패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시대적 가정 관념이 한 가지 요소이고 풍족해진 주택자원과, 비교적 발달된 노인보험제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가정 관념으로 볼 때, 가정의 중심이 친자관계로부터 부부관계로 변화되었기에 자식세대는 부모세대의 경제지원에서 벗어나 여러 방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효도 관념의 영향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상해 청년들은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이가 떨어져도 분리하지 않는"원칙을 통해서 현



대가정의 너무 소원해지는 폐단과 중국 전통의 과분하게 가정에 의지하는 결함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상해 집값은 최근에 계속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 공간개발에 따라 이미 돈을 낼 수 있으면 상해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자식 세대의 주택을 구매하는 돈이 어디에서 오든지간에 상해 청년들은 적어도 주택자원 부족으로 인한 가정구조의 제한을 타파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원 가족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양로제도가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기에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는 자식세대가 책임져야 했다. 때문에 상해 청년들은 부모와 분가해 살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여 "효도"와 "독립"을 실현하게 되었다.

(2) 청년들은 원 가족의 감정적 지지를 매우 바라지만 원가족의 도구적 지원에 대해서는 태도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원 가족이 제공하는 자녀세대에 대한 지원은 감정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정적 지지는 주관적, 정신적인 지지를 말하고 도구적 지지는 객관적인 지지, 실제적이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지, 예를 들면 경제적 도움과 후대에 대한 보육을 도와주는 것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현대 상해 청년들에 대한 원 가족의 감정적 지지는 매우 크다. "우리 가족이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허락이 없다면 그와 결혼 못한다"는 관점에 대해 28.9%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고 44.6%는 "그렇다"를 선택했다(표IV-5 참조).

상해 청년들은 그들의 혼인 문제에 대한 원 가족의 의견을 매우 존중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복종했다. 그들은 연애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원하지만 연애대상자가 결혼대상자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며 원가족의 감정적 지지와 인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대한 태도에는 비교적 복잡하다. "혼인비용(신혼 살림집, 혼인 피로연 등)을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는 관점에 대한 태도를 보면 51.2%의 조사대상자들은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지만 45.7%의 조사대상자들은 "그렇다."를 선택했다. 이는 상해 청년들이 원 가족의 도구적 지원에 대한 모

순성을 보여주는데 한 편으로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현실의 수요 때문에 부모세대의 경제적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청년들은 대부분 "집에서 여생을 안락하게 지내겠다"를 선택했다.

부모를 어떻게 봉양하고 원 가족은 어떻게 돌보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노인들에 대한 보살핌은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부모님들을 양로원 혹은 탁로소에 보내서 여생을 보내시게 하는 것보다 나쁜 선택은 아니다"는 관점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며, 73%의 청년들은 "내가 늙으면 집에서 여생을 안락하게 지내겠다"를 선택했다(표IV-5 참조).

사회경제의 빠른 발전과 도시화는 상해 청년들의 독립생활 경향을 더욱 강화했다.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부모와 분가해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효도"는 수천년의 문화기초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에서도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은 가정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정도가 높아져도 여전히 "효도"의 관념 또한 더욱 보급되고 있다. 상해 청년들의 "효도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표IV-5. 상해 청년들의 '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교육수준	질문 문항	평균 (최소 ~ 최대)	분산
원 가족의 독립	부모는 신혼부부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94	0.901
	부모와 같이 살아도 경제적으로는 독립해야 한다.	1.67	0.827
	부모와 같이 살고 같이 쓰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	2.61	0.999
원 가족의 지지	우리 가족이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허락이 없다면 그와 결혼하지 못한다.	1.98	0.942
	혼인비용(신혼 살림집, 혼인 피로연 등)을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2.65	0.916

노인 봉양	노인들에 대한 보살핌은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이 더욱 중요하다.	1.50	0.825
	템포가 빠른 사회에서 부모님들을 양로원 혹은 탁로소 에 보내서 여생을 보내시게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 니다.	2.97	1.005
	내가 늙으면 집에서 여생을 안락하게 지내겠다.	2.26	1.180
전 체			

➔ 제2절. 상해 청년들의 커뮤니티 건설

1.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

(1)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참여 동기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3가지로 요약된다. (1) "책임감"을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동기, 예컨대 약자를 동정하고 도와주며 사회에 유익하거나 의미가 있는 일을 하여 사회의 풍기를 개선하는 등 (2) "발전"을 축으로 하는 현대적인 동기, 예컨대 인생 경력을 풍부히 하고 친구를 사귀며 사회활동을 넓히고 개인기를 나타내며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여유시간을 충분히 이용하며 미래의 발전을 준비하고 타인의 긍정을 얻는 등 (3) "쾌락"을 축으로 하는 후현대적(post-modernism) 동기는 호기심, 신기함, 흥취, 자유, 취미, 즐거움, 재미, 충실, 만족 등 자극을 추구하고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활동 등으로 분류된다. 상해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주로 전통적인 동기와 현대적 동기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58.7%의 청년들은 다만 "지역사회에 힘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39.5%는 "사회풍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39.2%는 "인생경력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 31.6%는 "친구를 사귀고 사회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다(표IV-6 참조).

다시 말하면 상해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이며, 커뮤니티에 이바지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발전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다. 상해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의 다원성은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의 실제 효과를 더욱 중시하게 하며 행사성 봉사활동에 만족하지 않게 한다. 행사성 봉사활동의 예로서 정원청소 등의 일은 청년들의 눈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부동산 관리자가 청소부를 고용하여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커뮤니티를 위해 실용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표IV-6. 상해 청년들의 '지역사회(커뮤니티) 활동 참여 동기'

교육수준	질문 문항	언급된 횟수	언급된 비율 (%)
전통적인 동기 (책임감을 축으로 하는 동기)	지역사회에 힘을 이바지 하기위해	997	58.7
	사회풍기를 개선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671	39.5
	약자를 동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450	26.5
현대적 동기 (발전을 축 으로 하는 동기)	친구를 사귀고 사회활동을 넓히기 위해	537	31.6
	인생경험을 풍부히 하기 위해	666	39.2
	여유시간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413	24.3
	새로운 기능을 배우기 위해	213	12.5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	197	11.6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128	7.5
	미래의 발전(학교에 가거나 취직)을 위해	34	2.0
후현대적 동기 (쾌락을 축으로 하는 동기)	자극을 추구하고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14	0.8
	기타	48	2.8
전 체		4368	257.0

(2) 청년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 내용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대부분 주민위원회에서 직접 동원하는 활동인데 예를 들면 34.1%의 조사대상자들이 "정원을 청소하는" 활동에 참여했고 "빈곤을 돕는" 활동에 27.2%,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에 25.0%, 가전제품 수리, 전람 전시, 심리 자문 등 활동은 주민위원회에서 조직했지만 자원봉사자 참여가 적었다(표IV-7 참조).

커뮤니티 활동의 내용과 조직형식에 따라 의식적 참여와 실질적 참여로 나누어 보면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계층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적극

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질적 참여를 하고 의식적 참여는 선택적이었다.

의무적인 참여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참여방식인데 열성분자가 이끌어 치안을 순찰하고 표어를 쓰는 등의 선전 형식과 관념형태의 주입, 커뮤니티 사이의 비교 평가 혹은 정신문명건설 항목의 전람회 전시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의식적 참여의 특징은 참여하는 목적이 참여를 통해서 거주민들의 권리 의식, 이익의 표현이나 자치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도 아니며 주로 이런 참여를 통해서 모종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은 청년들의 책임감과 발전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청년들의 활동참여 동기와 어긋나기에 청년들의 적극성이 감소하고 참여한다 해도 싫증내고 얼버무리는 정서가 생겨나게 된다.

실질적 참여는 참여의 본의에 더욱 접근하는데 그 과정은 나타나고 토론하며 대항하고 이용하는 게임과정으로 참여의 목적은 자신의 흥취를 위해, 혹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커뮤니티의 공중복지를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문화 오락 활동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배드민턴, 축구, 야외활동 등은 이미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활동이 되었다. 이런 활동은 주민들의 신체건강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작은 단체 사회의 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기쁨도 가질 수 있으며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참여는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부합하기 때문에 조직적 동원 없이도 스스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다.

표IV-7. 상해 청년들의 '지역사회(커뮤니티) 참여활동 유형'

	언급된 비율(%)
정원을 청소한다.	34.1
빈곤을 돕는다.	27.2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25.0
환경을 녹화한다.	24.1
문화오락 활동	20.8
업주의 권익을 옹호한다.	11.6
노인과 장애자를 돕는다.	10.2
과학 보급 활동	9.9
의료 자문	9.8

분쟁을 조절한다.	8.2
치안순찰	7.2
가전제품을 수리한다.	5.3
다른 활동에 참여한다.	5.2
전람전시	4.9
법률 자문	4.9
심리 자문	1.7
참여하기 싫다.	2.0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해본 적이 없다.	19.4
전체	231.5

2. 청년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

(1) 청년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와 소속감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환경시설, 생활경험, 인간관계, 커뮤니티 분위기 등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79.3%의 상해 청년들은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비교적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주주택 유형별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거주주택 유형이 만족도에 영향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47.3%는 "분양 주택"에 거주하고, 8.9%가 "노동자 새마을"에 거주하고 9.0%가 "이주자 안치단지"에 거주하며 14.4%가 "골목길 주택"에 거주하고 1.7%가 별장에 거주한다. 커뮤니티의 거주환경이 좋고 공공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주민들의 경제사회지위가 높고 취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별장과 분양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청년들보다 당연히 높게 된다(표IV-8 참조).

거주시간은 청년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 주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를 보면 25.6%가 한 곳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11.1%가 한 곳에 7~9년 거주했으며 18.9%가 4~6년 거주했고 25.9%가 1~3년 거주했으며 18.4%는 1년 이하이

다. 거주하는 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하 거주한 청년들이 "매우 부합된다"와 "비교적 부합된다"를 선택한 비율이 81.5%이고 6개월~1년 이하 거주한 청년들은 82.1%, 1~3년 거주한 청년들은 80%이지만 4년 이상부터는 75%로 감소하고 10년 이상은 70% 만족도를 보인다. 이는 우리가 커뮤니티를 다시 건설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표IV-9 참조).

거주주택유형과 거주기간 외에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감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커뮤니티 내의 사회관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정도와 만족도 등이 있다. 상해 청년들의 비교적 강한 참여의향과 만족도가 커뮤니티에 대한 강한 감정적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참여 열정을 갖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티 구조 변화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

표IV-8. 거주주택유형별 상해 청년들의 '지역사회(커뮤니티) 만족도' (%)

교육수준	노동자 새마을	이주자 안치 단지	분양 주택	구식골 목길 주택	별장	신식골 목길 주택	기타	전 체
매우 부합된다.	1.6	1.5	10.2	1.6	0.2	1.4	4.8	21.2
비교적 부합된다.	4.8	4.9	29.4	4.4	1.2	3.9	9.5	58.2
부합되지 않는다.	1.4	1.5	5.7	1.1	0.1	0.9	2.3	13.1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0.6	0.5	0.9	0.5	0.2	0.1	0.7	3.4
모르겠다.	0.7	0.5	1.5	0.4	0.1	0.1	1.0	4.1
전 체	9.1	8.9	47.7	8.0	1.8	6.4	18.3	100.0

N=1763, P=0.001

표IV-9. 거주기간별 상해 청년들의 '지역사회(커뮤니티) 만족도' (%)

교육수준	6개월 이하	6개월 ~1년 이하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전 체
매우 만족한다.	1.8	3.8	5.3	3.2	2.3	5.0	21.4
비교적 만족한다.	2.7	7.0	15.7	11.6	6.5	14.5	57.9
만족하지 않는다.	0.5	1.4	3.6	2.4	1.7	3.7	13.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3	0.2	0.6	0.9	0.3	1.2	3.3
모르겠다.	0.3	0.6	0.7	0.9	0.4	1.2	4.1
전 체	5.6	12.9	25.9	18.9	11.1	25.6	100.0

N=1764, P=0.007

(2) 엑스포에 의한 커뮤니티 리모델링

"엑스포를 맞이하는 600일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은 조사대상자의 50% 밖에 안 되지만 80% 이상의 청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가 "엑스포를 맞이하는 600일 계획"에 참여하는데 동의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엑스포를 계기로 하여 커뮤니티에 유입되고 커뮤니티를 건설하며 커뮤니티 구조를 변경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관리자들은 엑스포를 많이 홍보해야 하며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엑스포 준비활동에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엑스포를 맞이하면서 지역사회 건설 중 우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명소질의 제고", "환경의 청결"과 "주택개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정부가 매우 중요시하는 3가지 중점행동과 부합된다(표IV-10 참조).

표IV-10. 상해 청년들의 "엑스포를 맞이하면서 지역사회 건설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지역 사회 문제	백분율(%)
주택개조	14.7
환경위생	22.9
거주안전	14.4
문명소질	31.6
정신상태	4.1
지역 사회 서비스	5.2
지역 사회 관리	5.8
빈곤을 돕는다.	1.0
기타	0.2
전 체	100.0

▶ 제3절. 상해 청년들과 새 농촌 건설

1. 청년들의 새 농촌 발전전망에 대한 인식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농업이 공업을 지원하고 공업의 축적이 필수였다면, 공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이른 후에는 공업이 농업에 되갚아서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여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연이다.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농촌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95.8%가 인정했는데 이는 대부분 청년들이 농촌발전은 중국의 다음 단계 발전의 관건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새 농촌"은 과학적인 발전관을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총괄하는 배경 하에서 공업이 농업에 되갚고 도시에서 농촌건설을 지원하며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로서 농촌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슬로건이다. 93.3%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좋은 방법이다."는 관점을 인정했는데 이는 대부분 청년들의 판단이 중앙정부의 도시와 농촌에 대한 책략과 일치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중앙정부의 책략이 청년들 가운데서도 아주 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은 농촌에서 중류수준의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사적 단계이다. 또한,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넉넉하며 마을모습이 말끔하고 관리가 민주적"인 농촌 건설의 요구이며 농촌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과 생태문명을 건설하는 네 가지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는 새 농촌건설을 통해서 농촌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 정치민주를 점차적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관점을 인정하며 85.9%의 청년들은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고 88.4%의 청년들은 "시의 지역의 발전에 자신감이 있다"는 관점을 인정했다(표IV-11 참조).

표IV-11. 상해 청년들의 “농촌 문제에 대한 인식”

	평균(최소1~최대5)	분산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농촌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59	0,718
사회주의 새 농촌을 건설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좋은 방법이다.	1,77	0,855
시외 지역의 발전에 신념이 있다.	1,95	1,010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있다.	1,84	0,872
도시 지역의 청년들은 시외 지역의 청년들 보다 자신의 호구에 더 큰 우월감이 있다.	2,10	0,945
도시의 청년들은 도시 지역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	1,83	0,852
농촌의 경제 수준과 생활조건이 도시와 같거나 더 좋을 때면 청년들은 자연적으로 농촌에 가기를 원하게 된다.	1,94	0,930
농민도 자격증을 따라 하는 날이 와야만 도시와 농촌 사이가 평등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2,24	1,110
많은 도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시외지역 혹은 농촌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2,38	1,141

2. 청년들의 도시와 농촌 상호작용에 대한 느낌과 체험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태도유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설계하여 청년들의 인정 정도를 측정했다. "도시의 청년들은 도시 지역에서 취업하기를 더욱 원한다"는 관점에 대해 88.5%의 청년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했고 "많은 도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시외지역 혹은 농촌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비록 28.6%의 청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66.3%의 청년들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했으며 72%의 청년들은 "도시 지역의 청년들은 시외 지역의 청년들보다 자신의 호구에 더 큰 우월감이 있다"는 관점을 인정했다. 호구의 구별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와 농촌의 이중 구조는 여전히 청년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주로 일상생활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취업이동, 공공투자 등의 방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는 짧은 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도시의 청년들은 도시지역에서 취업하기를 더욱 원한다"는 관점을 인

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청년들의 각성정도가 높지 않고 편견이 있다고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88.2%의 상해 청년들은 "농민을 하려 해도 자격증을 따라야 하는 날이 와야만 도시와 농촌 사이가 평등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는 관점을 인정했는데 이는 대부분 청년들이 농촌과 도시의 구별, 농민과 도시인의 구별이 노동 분업과 공간에서의 구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새 농촌 건설에 투신할 수 있게 하려면, 농촌의 산업, 소비, 금융, 보장 등 다양한 방법의 약세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도 증명되었는데 83.6%의 청년들이 "농촌의 경제 수준과 생활조건이 도시와 같거나 더 좋을 때면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농촌에 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관점을 인정하는데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농촌의 앞날과 농촌 발전의 중요한 전략위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후에 청년들이 농민과 농업,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에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투입을 하겠는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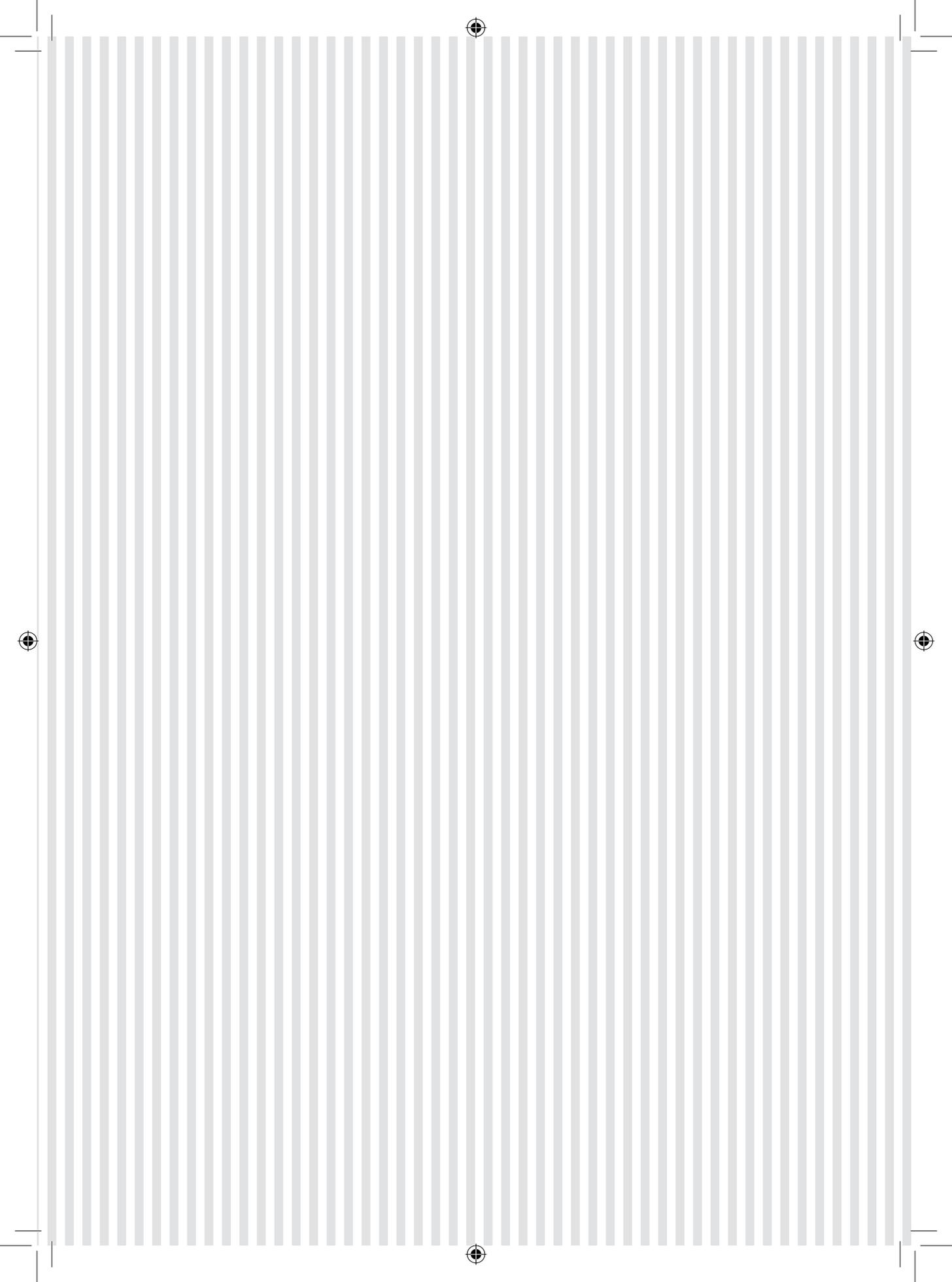
다음으로, 상해 청년들의 "대학생이 농촌에 취직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알아 보았다. 몇 년 전부터 대학생의 취업압박, 대학생 인재 자원의 방치와 농촌 기층조직의 인재부족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대학생 농촌간부"정책을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행하였지만 이제는 "중앙 조직부"에서 제출한 "모든 농촌에 대학생 간부가 있게 하자"는 목표에 따라 "대학생 농촌 간부" 사업은 더욱 중시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특히 청년들의 시각에서 볼 때 대학생이 농촌간부직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32%의 청년들은 대학생들이 "시외 지역, 농촌의 발전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농촌에 간다고 인정했고 39.3%의 청년들은 대학생들이 "취업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인정했으며 17.7%의 청년들은 "국가의 정책에 호응하는 의무적인 행동이다"고 인정했는데 다만 6.9%의 청년들만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는 것을 "진심으로 그 직무와 사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청년들은 대학생들이 농촌간부직을 하는 것을 피동적인 선택으로 인정했고 취업상황이 어렵고 도시에서 좋은 직업을 찾지 못하는데 대한 일종의 '유탄현상'이라고 인정했는데, 이런 인식을 다른 말로 하면 "도시가 농촌보다 좋다"와 "농촌간부는 도시시민 보다 못하다"인 것이다(표IV-12 참조).

표IV-12. 상해 청년들의 “대학생이 농촌지역에서 취직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백분율(%)
취업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39.3
시외 지역, 농촌의 발전전망이 좋다고 생각한다.	32.0
나라의 정책에 호응하는 의무적인 행동이다.	17.7
진심으로 그 직무와 사업을 좋아한다.	6.9
기타	4.1
전 체	100.0

* 중국정부는 농촌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졸업생이 농촌지역에 가서 취업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되고 있음. 고학력자의 농촌지역 취업분야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시의원 등 정치·행정 분야 진출이 주종을 이룸





▶▶▶ V. 엑스포 : 새로운 창조를 격려한다

➔ 제1절. 상해 청년들과 과학기술 창조

1. 청년들은 점차 과학기술 창조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국가경제와 문화 발전, 회사의 생존 등의 측면에서 창의성의 작용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91.2%의 조사대상 청년들은 "창의성은 중요한 것으로서 창의성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관점을 선택했다. 심리학연구에서 보면 인식은 태도의 기초이며 흔히 행위의 방향과 노력 정도를 결정한다. 현대 상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그들이 본인의 공부와 사업, 생활면에서 주체적인 창의와 적극적인 창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표 V-1 참조).

표 V-1. 상해 청년들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빈도수(명)	백분율(%)
창의성은 중요한 것으로서 창의성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1766	91.2
창의성은 중요하지 않다. 창의성이 없어도 발전 할 수 있다.	84	4.3
모르겠다.	86	4.4

창의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설계했다. "창의성은 고차원 인재들의 일이다"는 관점에 대해 49.2%의 청년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12.1%의 청년들이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창의성은 높고, 정제하고, 예리한 것이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60.0%이상 인정했지만 17.0%의 청년들은 "모르겠다"를 선택했는데 이는 많은 청년들은 아직도 창의성은 매우 수준이 높은 일로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으며 창의성은 첨단 기술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보면 창의성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 작은 발명, 작은 발견, 새로운 사고의 방향, 새로운 생각, 심지어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도 창의성의 표현이다. 우리가 창의성을 제창하는 것은 창의적 의식과 사유를 배양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반드시 창조의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교육

과 선전을 진행할 때 청소년들이 창의성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알도록 이끌어야 하며 우선 한 문제를 풀고 한 가지 일을 하며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두뇌를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우리를 기쁘고 위안되게 하는 것은 90% 이상의 청년들이 "누구나 창조력은 있다"는 관점을 인정한 것이다. 창의성은 천재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표 V-2 참조).

표 V-2. 상해 청년들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창의성은 고차원 인재들의 일이다.	16.7	22.0	12.1	38.7	10.5
창의성은 높고, 정제하고, 예리한 것이다.	25.3	36.6	17.0	18.1	2.9
누구나 창조능력은 다 있다.	50.3	40.6	6.0	2.4	0.7

2. 엑스포는 청년들의 과학기술 창조의 최적의 무대이다.

"엑스포가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관점에 대한 상해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0%이상의 청년들이 엑스포가 "회사에 대한 창의성 능력"에 대해 촉진작용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90%에 가까운 청년들이 엑스포가 "청년들에 대한 창의성 능력"에 촉진작용이 있다고 인정했다. 엑스포는 "경제, 과학기술, 문화영역의 올림픽"이라 불리고 있으며 과학기술 창의성은 엑스포의 본성이다. 2010년 엑스포는 "도시는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주제로 전람회에 참가한 대표단에서 여러 가지 최신 과학기술과 창조성과를 전시하는 외에 조직 면에서도 기술의 창의성을 엑스포의 준비사업과 엑스포 기간의 활동운영관리에 유입시켰다. 모든 분야의 창의성 주체는 기업이지만 기업의 창의성 주력군은 청년들이며 "과학기술 엑스포", "창의성 엑스포"의 이념이 이미 상해의 모든 구석, 모든 기업과 종업원한테 퍼졌는데 이는 회사의 자주적인 창의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창의성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표 V-3 참조).

표 V-3. 상해 청년들의 “엑스포가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관점에 대한 인식

	뚜렷한 촉진 작용이 있다.	일정한 촉진 작용이 있다.	촉진작용이 없다	모르겠다.
회사에 대한 창의성 능력	37.0	54.3	4.8	3.9
청년들에 대한 창의성 능력	22.7	57.0	7.9	12.5

3. 청년들의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제고하는 현실적 조치이다.

비록 사람마다 창의적 잠재력이 있고 엑스포가 청년들의 과학기술 창조에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반드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창의적 인재가 되어 창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2009년 6월 까지 이미 신청한 특허의 양을 살펴봤는데, 효력이 있는 1,930개의 건본 중에서 50 여명이 특허를 신청했고, 1인당 신청 비율이 평균 0.06회이었다.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창의성 필수 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선발 비율이 모두 비교적 높고 성별의 일치성도 높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두 가지 증가한다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이는 창의성은 전체적인 소질의 체현으로 지식, 감정, 의식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창조적 사유능력, 창의성 관념, 창의성 흥미의 선택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창의성 교육에서 우선 이 세 가지 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4 참조).

청년들이 본인의 창의적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63.0%의 청년들이 "사회실천을 증가해야 한다"는 관점을 선택했는데 여성의 비율이 67.1% 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창의성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정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상해의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실천 활동을 점점 중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이미 여름방학 사회실천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여러 청년들이 사회실천을 통해서 본인의 창의적 능력을 높이는데 적합했다. 그 외에 열독과 과학 연구 항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선택 비율이 10% 정도가 되는데 이 결과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계발 의미가 있다(표 V-5 참조).

표 V-4. 상해 청년들의 “창의성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

	전 체	남	여
창의성 관념	49.2	50.7	47.7
창의성 욕구	38.4	41.9	34.9
창의성 흥취	43.7	43.4	44.3
창의성 의지	42.0	41.2	42.8
창조적인 사유능력	67.4	63.4	71.3
창의성이 필요한 관찰력	32.8	27.6	38.4

표 V-5. 상해 청년들의 ‘효과적인 창의성 배양방법’ (%)

	전 체	남	여
사회 실천을 증가한다.	63.0	58.9	67.1
열독	10.7	12.6	8.9
과학 연구 항목에 참여한다.	9.7	11.6	7.6
창의성 방면의 집단 모임에 참여한다.	7.8	6.4	9.4
창의성에 관한 과목을 청강 한다.	5.1	6.0	4.2
창의성 방면의 경기에 참여한다.	2.5	2.9	2.1
기타	1.1	1.5	0.7

➔ 제2절. 상해 청년들의 창업소망

1. 청년 창업단체에 대한 개관

취업 압박이 증가하고 직업 선택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사회의 추진으로 인하여 점차 더 많은 중국인들이 창업집단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창의적 특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16.9%의 조사대상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더 많았고 호적별로 보면 "상해 거류증" 청년과 "다른 성시의 농촌호구"의 청년들의 비율이 더 많았으며 부서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개체자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했다. 2007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창업을 시도한 청년들의 비율이 8.4%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변화는 점차 더 많은 상해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추세를 나타낸다(표 V-6 참조).

청년 창업 형태의 변화는 예전 수치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V-7에서 보면, 2009년과 2007년 사이에 비슷한 면과 미세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이번 조사에서 보면 2개의 수치가 2007년을 초과했는데 하나는 '창업 의향'으로 이것이 2009년에는 60%를 넘었지만 2007년에는 60%가 안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을 원한다. 지금 준비 중이다"와 "창업을 원한다. 준비 되었다"의 2009년 비율이 2007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재적 창업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에서 확대 모집하는 효과가 누적되어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 지거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이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 선택 관념의 변화와 사회의 창업에 대한 정책과 행동의 지지이다. 엑스포가 가져다 준 창업의 기회가 있고 여러 청년들이 창업을 이해 할 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하고 창업조건 또한 성숙되었으며 창업의 수단과 기회도 많아진 것이 요인이다. 이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요인으로 이런 창업은 창의적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고 창업사회와 창의성 도시의 형상에 더욱 유리한 것이다(표 V-7 참조).

표 V-6. 상해 청년들의 '창업 시도 경험' (%)

교육수준	종별	시도해 봤다.	시도해 보지 못했다.
	전 체	16.9	83.1
성 별	남	20.8	79.2
	여	13.0	87.0
호 적	상해 호구	14.9	85.1
	상해 거류증	23.0	77.0
	다른 성시의 도시와 읍 호구	15.5	84.5
	다른 성시의 농촌호구	30.6	69.4
부서 성분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13.9	86.1
	민영기업	34.1	65.9
	삼자기업	26.2	73.8
	개체자유기업	35.7	64.3
	정부기관 혹은 사업 부서	13.1	86.9
	재학중인 학생	14.4	85.6
	현재 취직하지 않은 사람	16.9	83.1
	기타	8.7	91.3

표 V-7. 상해 청년들의 "창업 참여"에 대한 견해(%)

	창업을 원한다. 준비 못했다.	창업을 원한다. 지금 준비 중이다.	창업을 원한다. 준비 되었다.	창업을 원하지 않는다. 위험성이 너무 높다.	창업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창업에 적합하지 않다.	모르겠다.
2009년 조사	40.9	16.3	3.9	11.4	16.8	10.7
2007년조사	43.4	12.2	3.0	8.9	19.0	13.5

2. 청년 창업영역의 추세에 대한 분석

창업희망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론은 정부와 청년조직이 창업 정책의 인센과 창업 자금의 지지, 창업원의 설계, 창업기지의 건설, 창업교육의 실시 등의 방면에 근거를 제공하며 효과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상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창업분야는 첫 번째는 문화오락 분야이고 두 번째는 설계창의 분야이며 세 번째는 교육양성 분야인데 이 결과는 상해의 도시지위와 발전방향, 산업발전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상해에는 농후한 상하이파 문화 분위기와 창의성 도시의 추진과 거대한 교육양성 시장의 수요가 있기에 청년들의 창업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로 향한다. 창업은 도시의 발전을 추진하고 반대로 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세항목은 창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상관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중에 농업서비스 분야를 선택한 청년은 3.5%밖에 되지 않고 이는 농업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낮게 평가되고 상해의 도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과 연관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창업분야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문화오락과 설계창의 분야에 더 호감을 가지며 남성은 여성보다 과학기술 응용분야와 컴퓨터 인터넷 분야에 더 호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의 차이와 다른 분야와 직업의 성별에 대한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농업 서비스 분야 외에 남성과 여성의 창업 분야 분포는 모두 비교적 광범위하다.

교육정도는 청년들의 창업분야 선택에 대한 중요한 변수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 의향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균형 잡혔고 학력이 낮을수록(특히 중학교)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비율의 차이가 컸는데 이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배운 전공의 분포가 넓은 원인일 수 있다. 그 외에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교육양성 분야와 문화오락 분야를 선택하는 평균비율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보다 엄청 높지만 운송유통 분야와 농업서비스 분야를 선택한 비율은 매우 낮는데 이런 차이는 각별히 주목해야 하고 정부기관, 전문계 고교와 청년조직에서 창업을 이끌고 지지하는 방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표 V-8 참조).

표 V-8. 성별/교육수준별 상해 청년들의 창업 희망분야

	성별				교육수준					
	빈도수	백분율 (%)	남	여	중학교	인문계 고교	전문계 고교*	전문 대학	학부 (4년제)	대학원
문화오락분야	290	19.4	15.6	23.4	5.0	15.4	14.7	22.9	18.9	23.6
설계창의분야	211	14.1	9.6	18.7	0.0	21.5	13.8	13.9	14.8	8.5
교육양성분야	202	13.5	11.1	15.5	5.0	12.3	5.2	10.8	14.9	20.0
과학기술응용분야	164	11.0	15.3	6.7	15.0	18.5	12.1	10.5	8.6	15.8
도산매분야	159	10.6	11.2	10.1	10.0	6.2	12.1	10.8	11.8	7.9
컴퓨터인터넷분야	139	9.3	12.2	6.3	10.0	11.5	15.5	11.8	8.2	3.6
운송유통분야	121	8.1	9.5	6.9	30.0	6.2	11.2	9.3	7.3	3.6
중개서비스분야	112	7.5	8.9	6.1	10.0	3.8	6.0	4.6	8.8	10.3
농업서비스분야	53	3.5	3.7	3.5	15.0	3.8	6.9	2.2	3.6	2.4
기타	44	2.9	3.0	2.8	0.0	0.8	2.6	3.1	3.2	4.2

* 중국에서 전문계 고교에 속하는 학교유형은 직업 전문학교, 중등전문학교, 직공학교 등

3. 청년들의 창업조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이번 조사에서 창업조건은 내부조건과 외부조건을 포함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주관적 인식 방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창업 조건은 "충분한 자금", "우수한 창의성 단체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아주 우수한 창업계획이나 이윤모형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창업에 수요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다. 이는 2007년의 조사결과와 순서가 일치한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선 "충분한 자금"과 "일정한 사회관계가 있어야 한다."의 비율이 2007년보다 매우 낮고 "만족스러운 정치 정책 환경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와 "개인의 창업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2007년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상해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욱 이성적으로 발전했으며 자금과 사회관계에 완전히 의지하는 외부요소의 창업생각이 약화됐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시대 상해 청년들은 "사회와 가정의 지지", "만족스러운 정치 정책 환경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등의 외부조건과 "자신이 아주 우수한 창업계획이나 이윤모형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창업에 수요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수한 창의성 단체가 있어야 한다" 는 내부조건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었고 준비도 더 충분히 되었는데 이는 사회와 가정, 그리고 청년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현시대 상해 청년들은 엑스포를 계기로 이미 구비한 조건을 실제행동으로 전환하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분야에 용감히 시도해서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표 V-9 참조).

표 V-9. 상해 청년들의 '창업 조건' 에 대한 견해 (%)

	2009년 조사	2007년 조사
충분한 자금	63,1	71,2
우수한 창의성 단체가 있어야 한다.	63,4	64,5
자신이 아주 우수한 창업계획이나 이윤모형이 있어야 한다.	56,1	58,4
자신이 창업에 수요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2,6	57,5
만족스러운 정치 정책 환경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48,8	43,1
개인의 창업 열정이 있어야 한다.	40,6	34,4
일정한 사회관계가 있어야 한다.	37,0	49,8
사회와 가정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38,7	35,1
전문적인 창업지도부서가 있어야 한다.	20,7	17,9
기타	0,0	0,7



▶ 제3절 상해청년들과 문화혁신

세계 창의성 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John Hawkins는 "만약 나에게 '중국 최상의 도시' 트로피가 있다면 나는 그 트로피를 상해에 줄 것이다. 상해가 중국 창의성 산업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고 상해를 평가했다. 2006년 상해의 GDP는 이미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인당 평균 GDP도 만 달러에 접근했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한 도시의 1인당 평균 GDP가 만 달러 되면 이 도시는 이미 지식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탈공업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지식경제의 본질은 바로 창의성인 것이다. 엑스포 개최가 가까워짐에 따라 창의성을 영혼으로 하는 도시가 오래된 동방의 대지에 나타나고 있다.

1. 엑스포의 힘을 빌려 창의성 도시를 건설한다.

"자본과 기술이 주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창의성 시대가 다가왔다." 이 말은 미국 실리콘 밸리와 월가의 경제 엘리트들의 선언이었는데, 지금은 상해 창의성 청년들의 가슴속 언어가 되고 있다.

창의성 도시는 경제적 발전 수준 및 과학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시민들의 문명소양도 높은 도시로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개인의 창의적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도시이다. 또한, 인력 자본의 투입과 자주적인 창의성 능력을 도시의 주요한 경제성장 방식으로 하는 도시이고 문화 산업이 고도로 발전된 도시이다. 창의성 도시의 형성과 발전은 도시의 발전을 효율적 도시에서 창의성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의 형태와 품질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위에서 서술한 창의성 도시의 요소들이 상해에서는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해가 창의성 도시를 열심히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창의성 체계 건설, 과학과 교육의 발전 등을 통해 도시를 일으키는 전략적 책략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2003년에 중국 과학원 원장 루용상(路甬祥) 이 중국과학기술협회 학술총년회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



과 이상적인 사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전후에 국가의 창의성 체계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전후에 초보적으로 과학기술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국의 과학기술 전체 수준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의 중간수준에 도달케 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능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켜 지적 소유권을 갖는 중대한 창조적 성과를 많이 취득하고 중국이 하루빨리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강력한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21세기 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다. 뒤이어 상해시에서 공포한 "상해과학기술 창의성 체계건설에 관한 전략적 연구"에서는 상해의 창의성 체계 건설에 관한 전략적 목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15년부터 20년 사이에 상해는 체계가 완벽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창의성 능력이 강하며 창의성 효율이 높고 자원 유통, 시장 추진, 지역간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상인 과학기술 창의성 체계중 하나가 되게 한다. 상해가 중국 전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창의성 중심도시가 되면 인적·물적 창의성 자원이 집결되는 도시가 될 것이며 2010년("11개 5년 계획"의 목표년도)이 되면 전국에서 제일 완벽한 과학기술 창의성 체계 중 하나로 건설하는 것이다. 동시에 창의성 산업은 2005년 상해 시정부 사업보고와 "2004년-2010년 상해 문화발전 요지"에 포함되었으며 2006년에는 창의성 산업의 발전을 "11개 5년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로부터 창의성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사회 조직의 추진 하에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005년 8월 상해연극학원, 상해사회과학원, 상해문화미디어그룹과 상해실업그룹이 연합하여 합작과 교류, 자문과 배양, 중개 서비스, 자질 인증 등을 주제로 하는 상해 창의성산업 협회를 창립하여 회원들에게 국내외 시장 개척, 창의성산업의 측정과 평가, 창의성산업의 지적 소유권과 특허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회원들의 합법적인 권력과 이익을 보호했다. 2006년 7월, 상해에서는 "상해 도시 창의성 지수"를 완성했는데 이는 중국 여러 도시 가운데 처음이었다. 지수를 보면 2005년 상해 도시창의성 지수가 2004년 보다 9.1%증가 했는데, 그 중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수의 증가폭이 25.2%로서 제일 높은 것이었다. 2006년에는 상해 도시창의성 지수가 119.7% 인데 이는 2005년 상해 도시 창의성 지수 109.1 보다 9.32% 증가한 것으로서 창의성 산업의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나타냈다.

2005년부터 상해에서 진행된 국제창의성산업 페스티벌은 현재까지 총 4회를 진행했는데 중국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창의성 관련 행사 중 하나로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 홍콩과 대만 등 창의성 산업이 발달한 국가와 지역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의 상해주재 영사관들은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매회 페스티벌에



서 주제 전람관을 설치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 4회의 페스티벌 동안 관람한 총 인원은 60만 명을 초과했고 그 중 전문직 관중이 70% 이상이었으며 외국 관람객이 25% 이었다.

2009년 10월 13일 상해에서는 창의성 산업 집결지역 사업추진대회를 개최했다. 2008년 말까지 상해의 창의성산업의 부가가치는 이미 1048억 원이었으며 연 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GDP에서 점하는 비율이 7.66% 이었다. 2009년 10월까지 상해에는 모두 81개의 창의성산업 집결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미 70억 위안 정도의 사회 자본을 끌어들이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집결지역의 총 건축면적은 250만 m²이고 입주한 기업이 4,000개가 넘고 일자리를 8만개 이상 만들었다. 창의성산업은 이미 상해의 중요한 신흥 산업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경제발전 방식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상해의 경제·정보화위원회의 책임자는 동 대회에서 2010년 연말까지 상해에는 창의성 산업 집결지역이 100개가 될 것이고 2012년에는 집결지역의 총 생산규모가 500억 원까지 될 것이며 총 생산이 100억 이상 되는 집결지역이 2개 혹은 3개, 10억이 넘는 집결지역이 10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창의성 기업과 기구,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 상해는 개방 정도가 높고 활력이 넘치는 창의성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해는 이미 유네스코의 "글로벌 창의성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신청했다.

2. 청년들의 창의성 산업 발전 현황

창의성 도시를 건설하는 기초는 창의성 산업의 집결과 발전이다. 창의성산업은 지적 자원을 기초로 하며 비교적 강한 독창성이 있다. 창의성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기술력, 재능 등에 토대를 두고 경제세계화 배경에서 발전한 새로운 이념과 사조 또는 일종의 경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창의성 산업의 창조 본질은 청년들의 창의성 기질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산업의 성장 동력은 청년들이며 심지어 창의성산업은 주로 청년들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陆家嘴, 张江, 内环(지명)의 80여개 창의성 공업지역을 드나드는 8만 명에 달하는 청년 화이트칼라층에게서 이런 결론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외에 창의성산업은 광고, 건축, 예술, 골동품시장, 수공예품, 디자인, 영화와 영상, 소프트웨어, 음악, 표현예술, 출판 산업, 컴퓨터 서비스, TV와 라디오, 여행 산업, 박물관과 미술관,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데 창의성산업의 이런 사업적 특징도 청년들의 특성과 매우 부합된다.

엑스포는 상해 청년들의 창의성산업 발전에 절호의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상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왕루중(王如忠)과 료우용(廖勇)은 "창의성산업과 상해의 미래발전" 보고에서 상해의 창의성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2010년 상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유력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상해 엑스포가 가져다 줄 거대한 발전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엑스포 개최는 미래 10년, 혹은 더 긴 시간동안에 상해는 물론이고 양자강 삼각주 지역까지 경제 발전의 "모터"가 될 뿐만 아니라 상해의 도시 기능의 재건설,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국제적 이미지의 수립, 국제적 지위의 제고에도 모두 각별한 관련이 있다. 엑스포의 본질은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엑스포 주최국과 도시의 각별한 창의적 능력과 성과를 전시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산품의 집결인 것이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끊임없는 창조력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창의성산업의 번성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제 경험으로 볼 때 매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주최국, 특히 주최도시의 창의성 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전문가의 예측으로는 2010년 상해 엑스포의 개최는 상해에 인접한 항저우(杭州), 수저우(苏州), 난징(南京), 닝뽀(宁波) 등 양자강 삼각주 도시들이 함께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박람회 도시단지가 되게 할 것이며 박람회 산업을 핵심으로 오락, 미디어, 인쇄, 광고, 설계, 소프트웨어 등 관련 창의성 산업의 발전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상해창의성산업중심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올라와 있다. "엑스포와 창의성산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가 존재한다!" 엑스포는 창의성 산업을 전시하는 큰 무대인 것이다.

"모든 것이 엑스포에서 시작 되었다." 1851년 제1차 세계엑스포에 출품된 자명종, 증기동력 방직기, 1889년 파리 엑스포에서 처음 모습을 나타낸 에펠탑, 20세기 60년대 브뤼셀 엑스포에서 최초로 나타나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닭다리 튀김과 피자, 일본의 신칸센 건조를 직접적으로 추진한 1970년 오사카 엑스포, Aichi-ken 엑스포에서 나타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추진한 로봇기술 등... 인류문명의 발전을 수없이 증거하는 발명과 창조, 현대 문명의 기초를 잡아준 수없이 많은 창의성 생산품 등은 세계각지로 널리 전해지는 과정에서 모두 엑스포라는 중요한 무대를 거친 것이다.

"엑스포는 창의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기회이다." 새로 발명한 기술과 생산품의 전시, 전람관건축과 경관설계, 휘장설계와 마스크드설계, 엑스포 주제의 선택과 설명, 상업 서비스와 회의, 문화오락 활동과 기획, 교통설계와 시설건설, 도시관리 등은 모두 주최측과 설계





자들이 많은 창의성 영감을 쌓아서 진행해야 한다.

엑스포가 청년들의 창의성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2009년 3월 8일, 중국 정치협상회의 11회 2차회의 기자회견의 주제는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발표한 엑스포에 대한 담화"이었다. 정치협상회의 위원 양란(杨澜)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상해 엑스포가 중국의 문화창의성 산업에 참신한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해 엑스포는 전 중국을 향해 창의성과 설계 방안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엑스포를 개최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문화 창의성 활동은 세계 문명과 세계 문화가 교류하는 대단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창의성 사업자가 더 많이 배우고 세계와 더 잘 융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향후 중국 문화가 세계로 약진하고 동반 관계를 구축하며 더 좋은 경로를 소통하고 사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 하는데 매우 좋은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역대 엑스포는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을 매료시키는데 청소년들은 미래 우리사회의 건설자이며 미래 문화창의성의 동력이므로 그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세계적인 문화와 과학 기술 성취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들의 어린 심성에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상해는 당연히 엑스포의 전략적 기회를 잡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언급해야 할 것은 2009년 10월에 쟁안구(静安区)800수 창의성산업 집결지역에서 진행한 "2009년 제5회 상해 국제창의성산업 페스티벌" 활동이다. 그 주제가 바로 "창의성, 엑스포를 조우한다. 설계, 생활을 새겨본다" 이었다.

3. 엑스포는 창의성 청년 계층의 출현을 촉진시킨다.

창의성 도시를 건설하는 관건은 창의성 인재들이 많이 집결하는 것이다. "창의성 계급의 부흥", "창의성 계급의 급속한 발전"을 저술한 세계적인 창의성산업연구 전문가인 Florida Richard는 창의성 경제 시대에 사회 계층의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노동 계층과 서비스 산업 계층 외에 새로운 계층이 부상하는데 그것은 바로 창의성 계층인 것이다. 그는 창의성 계층을 "특별한 창조력을 가진 핵심"과 "창조성 전문 사업 인재"로 분류했다. 전자는 과학자, 대학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설계사, 건축가, 패션디자이너, 편집, 문화인사, 컨설팅 회사의 연구원과 기타 사회의 여론에 영향 주는 여러 사업의 기업가들을 말하고,





후자는 첨단 과학기술, 금융, 법률과 다른 지식 집약형 사업의 전문직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Florida가 추측한 것은 2002년 미국의 창의성 계층 인수는 3천만 명으로 노동력 시작의 30%를 점한다는 것이다. Florida는 창의성 계층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작용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창의성 시대의 청년들은 취업시장의 동력이고 경제활동시간도 더 길며 더 열심히 사업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업에 적응하기 쉽기 때문에 청년들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했다. Florida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창의성과 창조성을 구비하고 공동체적 가치관과 능력을 구비하며 도시생활의 편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가 창의성 계층을 매료시키며 창의성 계층의 특이한 생활 방식과 가치 추세가 도시와 커뮤니티 미래의 발전 방향을 지배한다는 등 창의성 계층의 특징을 요약했다.

상해 엑스포는 창의성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 창의성 인재도 많이 집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우선, 엑스포를 기획하는 과정과 개최하는 기간에 많은 청년들이 엑스포의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예를 들면 엑스포 전람관의 설계와 건설, 박람회의 기획과 실시, 엑스포 운영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설계와 보호, 엑스포의 광고, 선전과 보도 등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서 풍부한 창조력을 소유한 청년들이 많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다음으로, 엑스포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학술회의와 칼럼, 문화오락 활동 등은 많은 창의성 청년인재들을 배양하고 집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가 가져다주는 상해 도시 건설과 관리의 발전, 그리고 창의성 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전 중국, 심지어 국외의 청년들이 상해에 와서 취업하고 창업하도록 매료시킬 것이며 상해가 청년 창의성 인재들이 "이주하는 전당"이 되게 할 것이다.

비록 현재 우리는 상해의 청년 창의성 인재의 규모를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인원은 적어도 수십만으로 추산해야 할 것이다. 상해 창의성산업의 구조가 점차 합리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청년 창의성 인재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 것인데 현재 환동지(环同济)、쑤자후이(徐家汇)중심、정안구(静安区) 등 지역은 이미 청년 창의성 인재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되었다. 엑스포 후기부터 엑스포 단지과 주변지역은 새로운 창의성 인재들의 집결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 창의성 계층의 형성과 분포에 대해 더욱 깊게 연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며 관련된 정책의 실현과 서비스의 실행 면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보고

엑스포를 향한 상해 청년
2009 상해청년의식 보고서

인 쇄 2011년 1월 31일

발 행 2011년 1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원장 이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02-725-5216)

ISBN 978-89-7816-926-4 (9333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